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11 1982년 12월 2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December 21, 1982

DEC 2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회, 3단체 대화기회 마련

양로원 일원화움직임

한인위측 경과보고, 갈보리·동부 불참

15일밤 한인회 주선의 한인양로원 건립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의 모임은 갈보리교회와 동부장로교회측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인양로원건립은 범교민적인 행사로 추진되야하며, 추진단체간의 충돌이 교민전체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하오 7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있은 이 모임에서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측은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가 와이즈멘클럽에서 비롯된 단체이지만 한인사회 전체의 기구로서 모든 행사는 공개리에 추진돼 왔고, 그 재산권도 전적으로 한인전체의 것"이라고 전제한후, "한인회가 산하에 양로원위원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순한인회장은 "한인회가 양로원건립위를 산하단체로 만들려면 정식이사회및 임원의 논의와 결의를 거쳐 특별기구로서 발족시킬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이어 "갈보리교회측은 명목상으로는 한인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출발이 교회를 위한데서 나온 것으로 재산권을 교회의 것으로 고집하는이상 한인전체를 위한 양로원건립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밤 회의는 한인회측이 주요단체장과 한인양로원건립위, 갈보리교회 양로원건립위, 동부한인장로교회 양로원건립위등의 대표 각 3명을 불러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모임이었으나 박인순한인회장과 최복기 한인회부이사장, 조영호노년회장, 장순채신임회장 당선자 서춘경 라이온즈클럽회장과 양로원건립추진 당사자들인 천중환, 유영갑, 나상선씨의 한인양로원 건립위측만이 참석했다.

이날 노인회의 조영호회장은 "노인들의 갈곳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양로원건립 운동 때문에 노인회에 분열이 생기는 등의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루빨리 화합이 이루어져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아무런 통고없이 이모임에 불참한 양측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박인순회장은 불참한 갈보리교회와 동부한인장로교회의 태도를 다시 한번 타진해서 새 한인회 회장단측과 의논,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갈보리·동부등 양측은 16일 이날 모임을 알리는 서한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7일 공문송한을 맡은 한인회의 오정숙간사는 갈보리교회, 한인건립위측, 동부장로교회등 양로원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세 단체에 각3명씩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띄운지 2주일이 됐다면서 "다같은 날자에 단체장들에 띄운 참석요청통지는 다 전달되서 불참의 이유를 전화로 알려왔는데 유독 같은 토론토에 있는 갈보리교회와 동부장로교회로 보낸 서한이 아직도 배달이 안됐음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양로원건립운동의 일원화를 위해 한인회측이 마련한 15일밤 대화의 모임은 갈보리교회와 동부장로교회측의 불참으로 성과없이 끝났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한인양로원건립위측의 유영갑씨, 신임 한인회장 장순채씨, 노년회장인 조영호씨.

노년회, 한인건립위 지지성명

교회에 양로원추진 중단촉구

한국노년회는 최근 교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인양로원건립운동과 관련,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회장 천중환)측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일부 교회나 개인이름으로 추진중인 그밖의 건립운동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14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성명서는 각 에트닉·그룹에 한번씩 부여되는 정부의 양로원건립금 지원혜택을 여러 추진단체의 분단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서며 갈보리교회등 교회이름 혹은 이모씨등 개인명의로 추진중인 모든 양로원운동을 중단, 한인사회로 그 혜택을 돌릴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가

현재의 정관을 개정, 한인회 산하 기관으로 전체교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확약을 받았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며 개인의 명의나 한 교회의 명의로 설문지를 돌리는 어떠한 기관에도 현혹되지 말고, 회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많은 호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메트로·토론토주민들은 「화이트·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 같다. 기상당국자는 18일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첫폭설로 메트로지역은 18cm의 눈으로 뒤덮였으며 이눈은 크리스마스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눈으로 20일 아침 TTC와 고·트랜짓은 자동차대신 공공교통을 이용, 출근하는 사람들로 대혼잡을 이루기도 했다. 기상대측은 22일경 한차례의 폭설을 맞게 될것으로 예보했다.

사진은 20일 백설로 덮힌 토론토의 리버데일공원(Riverdale Park).

社 告

〈주간한국〉

새해부터 별도인쇄 서비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새해 1월초순부터 서울본사 발행 〈주간한국〉을 매주 별도로 인쇄, 독자가정에 우송합니다.

매주 타브로이드판 16페이지 이상으로 발행될 토론토 〈주간한국〉은 한국서는 가장 인기있는 주간지입니다.

토론토 〈주간한국〉의 표지는 이곳 사진으로 대체됩니다.

〈토론토 한국일보〉를 판매하는 각 식품점에서는 〈주간한국〉을 신문과 같은 가격인 1부당 40센트로 별도판매합니다.

현재까지 본사는 〈주간한국〉을 수요일자에 4페이지(타브로이드판 8페이지)로 재편집, 인쇄해 왔읍니다.

〈한국일보〉를 계속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전화부 발행연기

12월 중순께 발행 예정이었던 「한인업소전화부」(Business Directory)는 본사사정상 신춘(내년초)으로 연기합니다.

이같은 연기는 연말을 전후해서 동창회장등 단체장이 바뀌는 일이 많은 것도 한 이유입니다.

본사는 가급적 속히 한인단체·업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적힌 전화부를 만들어 독자의 편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김대중씨 워싱톤DC로

23일 가족과 함께, 처남 밝혀

(샌프란시스코지사)김대중씨는 23일 노스웨스트편으로 시애틀을 경유 일단 워싱턴DC에 오는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하오 샌프란시스코의 송정률목사(상항연합김리교회목사)는 김대중씨의 처남 이성호씨와의 통화후 김씨가 부인 이희호여사와 3남 홍걸씨(33), 막내 홍욱군(19)등 가족 3명과 함께 미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씨는 이와같은 김대중씨의 방미일정은 서울의 이희호여사와 국제통화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송목사에게 전했다.

한편 UPI도 17일 김씨가 워싱턴DC에 일단 체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택융자금 $8,000

금년말까지 혜택

새 주택구입자에게 지급해 주는 8천달러 정부융자금 혜택기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3천달러는 금년말까지 새집이던 헌집이던 관계없이 지급되고 년4월말까지는 새집구매자에게만 주어진다.

온타리오주정부가 지급하는 5천달러 융자금(Loan)은 메트로·토론토지역에서 11만5천달러(기타지역 9만달러)이하짜리의 새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나 금년말로 계약을 끝내야 한다.

주택업자들이 내년봄까지 이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온타리오주택성은 당초 방침대로 금년말 끝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주정부 융자금 5천달러는 15년간 무이자이며 10년후부터 5년동안 균일하게 매달 83,33달러씩 분할상환하게 되어있다.

이 융자제도가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주택업자들로 하여금 싼집을 많이 짓게해 영세민들의 소규모의 집장만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 주택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또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킨 이유는 20%가 넘던 모기지가 13%까지 내려온것이다. 예를들어 6만달러의 모기지를 얻으려면 종전(18%)에 연수입이 $36,420까지 돼야했으나 현이자율(13%)로는 $27,068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물론 이제도가 금년말로 끝나면서 내년 1, 2월의 경의 주택경기는 잠시 둔화될것으로 예상되나 새집에 대한 연방정부보조금이 내년 4월까지 계속되고 이자율이 계속되어지는 추세이므로 83년에는 다시한번 부동산붐이 일어날 것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다이아몬드·순금 란제대리점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사무실
410 DUNDAS ST. E.
☎: 961－2417
(12월20일부터)
537－3171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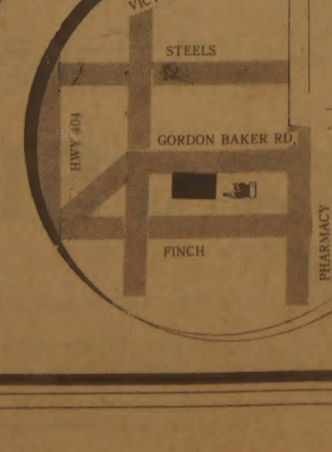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신장개업
개업일자 83년1월2일

마쵸레스토랑

새해에도
우리교민들께 많은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가 카나다에서는 가장 오래된 한국 일류 요리사를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1차 왕림하셔서 저희음식을 맛 보십시오.
자신있게 말씀드리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해 창 올림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스카브로) ☎: 498－130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각단체 연말파티 피크

호남향우회 파티 성황

18일밤 칼레지의 우크래니안센타에서는 호남향우회의 1년을 결산하는 총회와 함께 연말파티가 250여 회원과 초대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6천달러의 향우회 예산을 결산하고 신임회장에 마보훈씨(40)를 선출한후 연말파티 순서에 들어갔다.

신임 마회장은 인사말에서 "캐나다의 2천여 향우들을 위한 사업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마회장은 전남보성출신으로 미시사가에서 상점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파티는 전임회장단(회장 장영대)에서 손수장만한 한식으로 저녁을 든후 김병선씨의 사회로 총회순서부터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광주사태희생자들에 대한 묵념후 장영대회장의 인사말, 정철기씨의 감사보고순서등으로 진행됐다.

총회후 2부순서에서는 멀리 미국 워싱톤에서 초대된 가수 송대관를 비롯, 교민 이충희씨등이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서 댄스파티, 경품추첨등이 있었다. 향우회원 미도파백화점의 장추신씨가 증정한 남자용 오메가 시계가 상품, 복권특등에는 윤재용씨가 당첨됐다.

◆신임 호남향우회장 마보훈씨

교포 130여명 참석 오샤와지구 실협파티

오샤와및 더햄(Durham)지역 한인실업인및 교포성탄파티가 17일 Oshawa Shrine Club에서 130여명의 실업인및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저녁 9시부터 김천만 실업인협회 총무 사회로 진행된 성탄파티 참석내빈중에는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차선겸 회장, 김태진 이사장, 외환은행 이수신천무및 캐나디안 생산업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영민 오샤와지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차회장과 외환은행 이전무는 이 지역 회원들에게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맥도날드·타바코(Macdonald Tobacco)의 노만씨는 격려사를 통해 오샤와 지역의 한인실업인들이 아직 숫자로는 미흡하지만 굳게 뭉친 단결된 모습을 볼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2세교육을 위한 전 회원의 노력은 더욱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파티에서 한글학교 학부형회장 박태식(전한인회 부회장)씨는 세종한글학교 Mrs.구, Mrs.최희근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

2부순서에서는 진경호 전회장과 구연호이사장의 사회로 다채로운 게임과 댄스파티가 진행되었다.

오샤와및 더햄지역의 한인실업인들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회장에 김규태씨 나이아가라한인회

(나이아가라)지난 11일 나이아가라지역 한인회(Niagara Region-Korean Association)는 복합문화센터(세인캐서린)에서 송년파티겸 정기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83년도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 김규태

부회장: 옥병화

신임 김회장은 예비역 소령인 조각가(목각)로 80년도 CNE에 목각작품을 출품, 1등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옥부회장은 나이아가라한인장로교회를 개척한 집사이다.

연고대 동문회 합동연말파티

토론토지역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서춘경)와 연세대학교 동문회(회장 박남회)의 합동연말파티 「고려·연세의 밤」이 17일밤 150여명의 양교 동문부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Sai Woo Restaurant에서 거행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번 합동연말파티는 고대 서회장과 연세 박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연대 39년도 졸업생인 이해득씨의 일제하의 학창시절 추억담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인사중에는 이상훈총영사, 최승낙외환은행장, 이원순조흥은행사무소장등이 있었다.

이광민씨의 사회로 다채로운 여흥, 경품추첨, 댄스로 이어진 이날 파티는 새벽 1시30분까지 계속됐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134>

출발 ⑮

배신자는 "피의 포도주" 댓가받아…

『말씀을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빵건이 물건인만큼 우리는 가만히 있을만한 놈 4명을 거기에 붙여놨드랬지요. 그런데 지난7일 물건과함께 운반책 4명이 행방불명이됐어요. 행방불명된 장소는 한국입니다. 그동안 그놈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우리는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지요. 첫째는 놈들이 체포되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체포된 흔적이 없어요. 한국에있는 우리 끄나불이 알아본 결과는 그놈들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둘째는 다른 조직에서 그들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도 성립되지가 않았읍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식으로 도전해올만큼 어리석은 조직이 이 세계에는 없어요. 우리조직을 건드리면 그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두가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은 덩치가 큰만큼 시장에 나가기가 무섭게 소문이 나기마련입니다. 그런데 전세계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우리 조직원들로부터는 아직까지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보고가 없어요. 세째는 운반책이 그 물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입니다. 그 앞에든 두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고 볼때 남는 것은 이 세번째 것입니다. 이가능성은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인간의욕심은 조직을 배신하는것 같은 엄청난충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피의 약속따위는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기 마련이지요. 우리 조직에 들어오게 될 때는 피의 서약을 하게됩니다. 36개항에 대한 피의서약이지요. 입회식에서는 신입회원과 원로 새끼손가락에서 빼낸피와 수탉의 피를 포도주에 타서 모두가 마십니다. 그것은 죽어서야 조직에서 나갈 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배신자는 피의포도주를 나누어마신 모든 조직원들의 칼에 살해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배신자들이 있어왔지만 이 서약은 엄격히 지켜져왔읍니다.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 지금도 심심찮게 배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읍니다. 어리석은 놈들이지요.』

『누가 어리석은지 모르겠군요. 당신말대로라면 그 4명이 합작했다고 볼수있는데,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을까?』

『역시 선생다운 지적이십니다.』

검은안경은 새시가에 불을붙였다.

『우리는 의기투합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언제나 서로 모르는 놈들을 동행시키지요. 물론 이번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읍니다. 그놈들은 처음 만나 운반책임을 맡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역까지 맡겼읍니다. 따라서 4명이 의기투합해서 물건을 빼돌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4명이 동시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는없지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배신자는 1명, 아니면 2명이다. 한명이 어리석은 짓을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리고 그 한명이 다른 한명을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수 있읍니다. 나머지 3명을 모두포섭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명정도야 그다지 어렵지 않게 포섭할 수 있지요.』

朴男 그림

본보에 게재된 기사 또는 광고도안의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은행강도 돌변

(뉴욕발)미국 테네시주 모오리시에서 지난 13일 아침, 문을 열자마자 은행지점에 들어온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사나이가 선물용 상자에서 권총을 꺼내 은행원들을 손들게 하고, 현금을 강탈, 창밖의 동행인들에게 웃는 낯으로 손을 저어 보이며 유유히 도주했다. 피해액은 확실치 않다.

강도를 당한 아라모은행 모오리지점을 털 가짜 산타클로스는 이날 상오9시 개점과 동시, 고운 포장지에 싼 크고 작은 두 선물상자를 들고 은행에 들어섰다.

은행에 들어서자 마자 그는 작은 상자에서 권총을 꺼내 겨누면서 "이 큰 상자에 현찰을 담으라"고, 금고실 담당을 시켜 지폐를 담게 했다.

목적을 달성한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움직이면 쏜다"고 겁주고 차로 달아났다.

그 시간, 은행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은 "산타가 은행 안에서 손을 젓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박순배씨 피선 83년도 문협회장에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조정대)는 지난 19일밤 조회장 자택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83년도 임원을 뽑았다.

고문: 이석현(유임)

회장: 박순배

부회장: 이태준·주수자

총무: 김대호

재무겸 서기: 정봉희(유임)

한편 문협 신춘문예 심사위원들은 이날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에서 응모된 10명의 19편(시 4, 단편 4, 수필 9, 동화 2)를 놓고, 예비심사를 했다.

예선통과작을 가지고 독회를 가진 후, 의견교환후 결선하여, 입상작은 83년1월1일 작품게재와 동시 수상자 발표를 한다.

◀결혼축하▶

신랑: 함의현씨 장남 승훈 군

신부: 조한긍씨 3녀 미상 양

때: 82년 12월27일(월) 하오3시

곳: 토론토한인천주교회(83 Power St.×Queen St.E.)

주례: 최규식 신부

피로연: The Old Mill 하오 5시 (21 Old Mill Rd. 올드밀서브웨이 뒤)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

홍 신 웅(목사·토론토 침례교회)

지난 수요일 저녁 잘 아는 교포청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것같읍니다. 오늘 신문을 읽어 보셨읍니까?"

"아니오, 읽어보지 못하였읍니다. 무슨 좋은 기사가 있읍니까?"라고 반문을 하였더니,

"예, 저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보도되었읍니다.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읍니다."

그 청년은 기쁨과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청년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청년은 신체도 건강하고, 외모도 잘 생겼고,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다. 어디에나 일자리가 있다하면 임금의 낮고 높음을 따지지 않고 달려가서 불평 한 마디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부지런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이라는 조그마한 종이쪽지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남과 같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고,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친척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때가 많았다. 때로는 협박과 공갈을 당하여도 대꾸 한마디 못하고, 그 수모를 참고 살아야 했다.

이와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면령」을 내려서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는 기사야말로 희소식중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수십배나 더 기쁜 지상최대의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땅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이란 곳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이다.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 2:10)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히9:27)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일정한 기간을 살고나면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다. 한해 두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일 것이다.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햇빛도 들지 않는 침침한 감방에서 양손에는 수갑을 차고, 언제 끌려 나가서 목에 밧줄이 걸려 사형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공포속에 살면서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다. 사형집행은 주로 이른 아침에 행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형수들은 아침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하는 공포심에 싸여 있다가 아침식사가 끝나고, 이럭저럭 9시, 10시가 지나면 이제는 오늘 하루를 더 살게 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는 말을 들었다.

그 지긋지긋한 감옥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목숨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전에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년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의 입을 통하여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미가 5:2)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지명은 "떡집"(The house of bread)이라는 뜻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니"(요6:35)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떡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도 의미 심장한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지상최대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이 행복할 때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불우한 이웃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번 성탄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정신이 온 교민들의 마음속에 향기롭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주의 위로와 평화가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

연말 수련회 협신기도원

협신기도원은 오는 27일 하오5시부터 30일(목) 낮 12시까지 연말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의 강사는 조인택목사이다.

조목사는 현재 시카고 미현교회 시무중이다. 수련회 후원측인 협신선교협회는 이기풍목사 서교일대기와 손양원목사 순교일대기 영화 "사랑의 원자탄"을 각 교회·단체에 제공한다.

협신선교협회 연락처는 245-1687.

〈제 언〉

하나로 뭉친 힘을 (하)

—실업인협회와 상공인협회에 말한다—

김 철 수 (토론토 실업인)

상협의 탄생은 실협에 우선 책임이 있다.

첫째, 실협은 한인소매상 중심의 단체로 이미 제한적 활동을 해왔으며,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게끔 해왔다.

둘째, 실협을 이끌고 나갈 집행부나 이사진은 소매상중심의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째, 실협은 그 실질적 사업 속에 소매상 중심의 자금원과 실협 스스로가 사실상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그의 본격적 사업인 협동조합을 추진중에 있다.

위의 사실들은 실협정관 내용에 아무리 전교민의 사업을 포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할지라도 이미 현실 속에서 소매상 중심의 제한된 협회임을 시인해야 한다. 이미 필자는 개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과거의 회장단에 오늘의 현실이 도래될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실협은 범교민적 사업의 연합체이냐? 소매상 중심의 제한된 연합체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실협이 무엇이라 해도 분명치 않다.

우리는 성장과정에서의 과거의 파도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상협이 교민사회의 여론을 얻지 못해 자연도태되든지, 아니되든지 간에 범교민적 일관성 있는 하나의 협회가 필요한 것이며, 단 한 교민이라도 실족시켜서는 안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실협은 결정의 때를 만났다. 실협의 현 이사진과 집행부는 정관에 있는 그대로 범교민적 사업연합체로 승격하기 위하여 실협 안에 있는 새로운 분과협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사업을 위임하든지, 현재까지 제한된 사업을 실행해온 그대로 한인소매상점만을 위한 협회로 남아있고, 새로운 교포사업계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상부협회를 구성할 것을 한인사회에 요구하든지 해야 한다.

실협이 분명한 이 결정을 내릴 때 한인사업계는 그 조직면에서 질서를 찾을 수 있으며, 상협과 단합내지 이미 결속하거나 포용치 못한 다른 업계의 교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만약 실협이 우물쭈물하여 소극적이거나 양다리를 걸치려고 할때 그것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며, 기득권으로 말미암아 고집을 부리는 결과가 되며, 전교민에게로 향한 설득력을 잃게 되며, 상협을 발족시킨 교민들에게 상협의 필요성에 대한 구실을 스스로 만들어 주고 마는 것이 된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집단활동체에서 최선책이냐 차선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 지도자냐? 저 지도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합된 힘이 중요한 것이다. 단합된 힘은 불행히도 차선책을 선택하고, 차선의 지도자를 선택했을지라도 단합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차선책을 최선책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으며, 차선의 지도자를 최선의 지도자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힘이 부족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원망도 해보았다. 또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거리로 뛰어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부족이 내 속에도 있다고 느낄 때 조상에 대한 원망을 중단해야 하며, 불끈 쥐었던 젊음의 분노를 가라앉혀 내 속에서 그 부족을 채워야 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먼저 역사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나부터 단합된 힘의 근본을 이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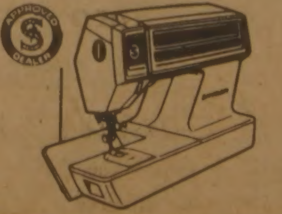
우리는 고작 15년 남짓한 이민사를 가졌다. 겨우 단 하나의 협회를 이룩했다. 또하나의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또다른 협회가 생기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는 영원히 큰 소망을 걸 수 없는 민족이 될는지도 모른다. 또하나의 우월감을 가진 제3의 협회가 생기며 좀더 발전을 이룩한 사람들끼리의 제4의 협회가 필요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곧 그것은 오합지졸이며 원주민들의 밥인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민족은 역사 속에 있었던 치욕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사고하며 뛰는 민족이다.

필자는 사업하는 교민의 한사람으로서 용기있는 선배들에 의하여 소망있는 결실이 있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한다.

즐거운 성탄을 맞으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위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For everything you need to sew. Call SINGER



EAST
SINGER CENTRE GERRARD SQUARE
1000 GERRARD ST. E.(& PAPE)
Tel : 461-9764

WEST
SINGER SQUARE ONE
MISSISSAUGA
Tel : 277-0341

"엄마, 산타클로스가 진짜있어요?" "정말 있다"고 믿게하는 것이 좋다

크리스마스이브. 눈속을 헤치고 사슴을 타고 올 산타클로스. 가슴 부푼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꿈꾼다. 혹은 지붕의 굴뚝을 타고 내려올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상상하기도한다. 어린시절에 누구나 한번쯤 믿었던 산타클로스 신화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엄마,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어요」라고 물었을 때를 걱정하게된다. 처음부터 아예 사실대로 말해줄까 아니면 나중에 사실이 들어날 때 뭐라고 아이들을 설득시켜야하나? 비록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었다해도 산타클로스를 그대로 아이들이 믿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심리학자이며 다섯자녀를 둔 버나드·그레이씨는 『아이들에게는 솔직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때로는 차가운 현실이 불필요』라고 말한다. 산타클로스라는 개념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주 악의가 없는 아름다운 것.

비록 아이들에게 솔직히 털어 놓고 선물은 산타할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봉급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해주면 이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 버리는 결과밖에는 안된다고. 오히려 이 환상을 일찍 깨달은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아이」로 취급되는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해도 아이들은 꿈속의 산타할아버지와 사슴을 믿고 싶어한다는 것.

산타할아버지가 진짜 있느냐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좋은 방법은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결정적인 판단은 그들이 내리게 하는 것. 가령 『산타할아버지가 있지요?』라고 물으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지 모른다. 네 생각은 어떠니』하고 반문해둔다. 그러나 없을 것이라는 의심에 가득차서 물으면 『아마도 그렇지 모르지.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답변하도록 심리학자인 켈리 박사는 조언한다.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결코 산타할아버지 신화는 아이들의 가치관을 저해하지 않는 즐거운 추억거리라는 점이다.

▲『엄마, 산타클로즈가 굴뚝으로 오나요?』 어린이들의 이같이 순진한 질문에 굳이 『아니다』라고 답할 필요는 없다.

533-2361 구독신청은

〈독자의 광장〉

액땜이라기엔 억울한 도난

김 정 희 (토론토 거주)

여보세요…, 여기는 Pinetree St, 00번지인데요, 도둑이 저희 집에 들었어요, 물건들과 현금을 도난당했어요, 지문채취에 지장이 있으니 현장을 만지지 말라구요? 알겠읍니다, 고마워요."

허탈과 놀라움으로 덜덜 떨리는 수화기를 놓고 십여분이 지났을까? 육척장신의 경찰모를 쓴 두 전장한 순경이 나타났다.

"도난 당한 물건은?, 시간은?, 현금은?, 보험은?—"

틀에 박힌 사무적인 어조로 사건경위를 적으며 자기도 2주전에 집을 털렸다고 씁쓸히 얘기하는 옆모습에서 "범인 잡긴 다 틀렸구나"하는 생각이 번득인다.

월급장이 8년 동안 모은 미국동전 한 주머니와 서울의 친구가 골프채를 사달라고 보냈던 US달러와 비상금및 귀중품을 내 물건 찾아가듯 용케도 털어갔다.

순경들이 지하실 유리문과 덧문을 칼로 자르고 들어온 것을 설명하며, 보험회사에 연락하라며 사라졌다.

지난 주말 두 아이를 데리고 하루종일 집을 비운 사이에 생긴 일이다.

거지, 도둑이 없는 지상의 낙원이라면 캐나다도 이제는 옛말인가? 세계를 흐르는 불황의 여파로 "강도"라는 새 직종이 성황중인지도 모른다.

그 방법도 여러가지여서 어느 집은 현금 못찾은 분풀이로 몇천달러씩 하는 가구를 칼로 긋고 자르고 망치질을 했다 하며, 어느 집은 Walk-In 옷장 문을 열고 수십벌이 넘는 옷에다 페인트칠을 하고 갔다 한다.

하루 20여건의 강도사건의 발생이며, 얼마전 〈한국일보〉에서 읽었던, 강도, 절도, 도둑의 연말성시 요주의 기사를 강건너 불 구경하듯, 나하고는 먼 스토리라고 일축했던 어리석음….

반성으로 한해를 거두면서 액땜이라기엔 너무도 억울한 심정으로 두마리의 소를 잃지 않기 위해 허술한 외양간을 다시 손질해야할 의무를 느낀다.

창문, 유리문, 대문의 lock의 check, 현금·귀중품의 분산, 집이 빌 경우에의 소등및 래디오 켜놓기, 철저한 보험가입등이 현대를 사는 최고의 센스일 것같다.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외형적인不具 性生活에 지장없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을때 이때문에 성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인가를 물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문은 특히 남성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남성과 결혼을 해도 되겠는가를 물어 온다.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쓴다는 경우까지도 결혼에 지장이 있겠느냐고 묻는것은 좀 지나친 질문이다.

따지고 보면 하진 중요한 일일수도 있다. 첫째 성행위가 전혀 되지 않을만한 장애자인 경우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산다는것이 과연 성생활에만 있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물주가 공평하다 한다면 이런 장애자의 경우에는 이런 장애를 준 대신 무언가 좋은 점을 주고 있을 것이다. 실망말고 노력해서 이것을 찾아내야 할것이다.

기타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라든가 전간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일 유전병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아이는 갖지 않는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은채 부모(부모도 「나」는 아니다)에의해 어떤 병 또는 증상을 이어 받음으로써 그동안 겪었던 여러가지를 생각할때 왜 또 죄없이 그런 고통을 가져야 할 아이를 이세상에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둘이서 둘만의 생활을 즐기도록, 또는 굳이 원한다면 양자라도 들여서 양육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된다. 그러나 전간의 경우는 반드시 유전에 의한다고는 할수없다.

이런 결정적인 경우외에 실은 별일도 아닌 경우인데도 많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결핵이 있다. 또는 부모가 나환자였었다 하는 경우들이 그렇고, 외상에 의해 다리가 또는 팔이 하나없다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 결핵은 퇴치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치료만 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결핵의 증상이 생식기에 파급이 되어 여성의 경우 난관이, 남성의 경우 정관이 막혀 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쩌면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나환자의 자녀로서 나병에 걸려 있지 않은 경우는 전혀 지장을 주지않을 것이고 외상에 의한 기형은 그것이 생식기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기관이 아닐 경우 문제는 되지않는다.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좋은것은 결코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비관을 할일도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세상이 공평하다 할 때 더 한층 비관은 금물임이 분명한 것이다. 다만 2세의 문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한데 때로 2세들이 부모의 불구를 비관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이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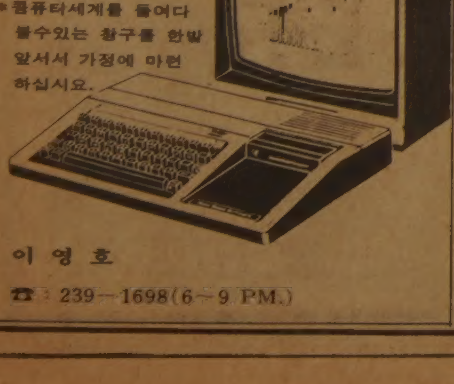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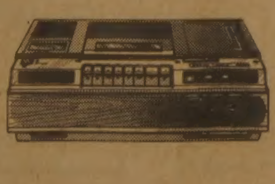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J&S ELECTRONIC
78 ELMBROOK CR. ETOBICOKE
Home Computer TI-99/4A
◎프로그램 습득
◎비데오게임
◎가계부관리및 계획
◎소규모사업에의 응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읍니다.
*컴퓨터세계를 들여다 볼수있는 창구를 한발 앞서서 가정에 마련하십시요.



이 영 호
☎: 239—1698(6~9 P.M.)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V VIDEO 염가판매
● T.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 광래

송년금식대성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은 금식기도로, 누구든지 오셔서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우리의 애타는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것입니다.

◎장 소: 오순절기도원
◎시 일: 12월29일 오전10시부터 3일간
◎강 사: 박준하목사 이필주목사 장세택목사
◎준비물: 성경·찬송가·세면도구 필기도구 (담요)

한국일보

金大中석방 渡美허용

政府、身病치료위해 刑집행 停止

어제아침 서울大병원移監

빠르면 來週중에 出國

"光州사태 關聯者등 포함 和合同參 기회부여 검토"

정부는 16일상오 국가보안법, 戒嚴法등을 위반, 대법원에서 刑이 확정돼 淸州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金大中을 서울대학병원으로 移送해 持病을 치료토록하는한편 그의 희망을 참작, 미국에서의 身病치료를 포함한 가능한 관대한 조치를 취할방침이라고 정부대변인李振羲문공부장관이 이날 발표했다. 金大中과 그가족들은 미국에서의 金의 신병치료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도 金의 출국을 위해 현재 刑집행정지등 필요한 法的절차를 밟고있기때문에 金은 빠르면 내주중에 미국으로 떠날것으로 보인다.

◇정부代辯人 발표全文

『정부는 國家保安法 戒嚴法등을 위반 1981년 1월23일 大法院에서 刑이 확정되어 淸州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金大中을 서울대학병원으로 移送, 持病을 치료토록 조치했다. 金大中은 12월16일 상오 서울大病院에 이송되어 치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정부는 앞으로 金大中본인과 그가족의 희망을 참작, 美國에서의 身病치료를 포함하여 가능한 관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려는 제5공화국의 의지와 全斗煥대통령각하의 각별한 人道主義的 배려에서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金大中의 서울大병원 移送조치와 아울러 金大中 內亂陰謀사건 連累者 및 光州사태 관련자들을 포함한 舊時代및 混亂期의 類似한 法위반자들에 대하여 우리사회발전에 同參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

李文公발표 "持病악화아닌 人道的배려"

李문공장관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舊시대의 殘滓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려는 제5공화국의 의지와 全斗煥대통령의 각별한 人道主義的배려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金大中의 서울大병원이송조치와 아울러 金大中내란음모사건 연루자및 光州사태관련자들을 포함한 舊시대및 混亂期의 類似한 法위반자들에 대해 우리사회발전에 同參할수있는 기회를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金은 대법원에서 刑이 확정되어 81년1월23일부터 淸州교도소에서 복역해왔으며 16일상오10시께 서울大병원으로 이송됐다.

金大中 病勢

▲70년도 교통사고로 發病한 股關節炎 ▲持病인 下肢浮腫症및 耳鳴症 ▲肩胛關節部 凍結肩症勢

이들持病으로 矯導所 收容前부터 계속 치료하여왔으나 교도소 收容中에도 藥物投與·物理치료등 계속치료

◇金大中의 석방을 발표하는 李振羲문공장관.

"出國절차 협의중" 高位소식통 이번措置 外部영향없어"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16일 金大中의 서울大병원 移送과 관련한 배경설명을 통해 『金大中본인과 가족들이 미국에서의 身病치료를 희망하고있으며 정부는 이같은 희망까지도 들어주어 현재관계부처가 刑집행정지등 필요한 法的절차를 밟고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金은 빠르면 내주중 미국으로 떠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金의 移送은 과거부터 앓아오던 그의 持病이 악화됐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차제에 金에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관용을 베푸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현재 刑집행정지등 실무적인 法的절차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실무적 방안을 검토한 결과 출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이번 조치가 정치활동 被規制者解禁, 구속학생석방, 美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이번 조치에서 언급조차 되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조치의 의미에 대해 『국민모두가 大和合을 이룩하자는 제5공화국 정부의 의지가 발로된 自主的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에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은 전혀없었다』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또 『제5공화국 출범3년간에 政局이 안정되고 정치도 원숙한 단계에 이르러 정부가 자신감을 갖게돼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조치가 결코 法의집행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하자는 뜻은 결코아니며, 아무것에 대해서나 法을 너그럽게 적용하는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刑집행 停止로도 渡美치료등 가능

정부가 취한 金大中의 서울大병원 移送조치는 行刑法 29조의 「所內에서 受刑者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該소장은 所外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金은 현재 병원收容상태로서 앞으로 渡美치료를 받기위해서는 刑집행정지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의 出國을 위해서는 특별赦免등의 방법도있으나 현재로서는 刑집행정지가 내려질것이 유력하다.

刑집행정지기간내에는 「보호관찰」의 대상이되지만 출국은 가능하다.

12층1病棟 입원 上午 부인이面會

金大中은 16일상오 淸州교도소에서 서울大병원12층1병동에 옮겨져 입원했다. 金모간호원(25)에 의하면 이날낮까지는 담당의사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상오10시께 전화로 서울大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받은 부인 李姬鎬씨(60)는 상오11시께 남편을 만났다.

舊時代청산하는 政治的 決斷

정부의 金大中에 대한 渡美치료허용조치는 對立과 反目, 극한 투쟁등으로 얼룩졌던 10·26사태이전의 舊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국민화합을 통해 국민모두가 새시대건설에 同參할수 있도록하기위한 決斷으로 평가된다.

全斗煥대통령은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和合이 국가발전과 안정에 가장긴요하다는점을 강조해 왔다. 이런점에서 이번 관용조치는 全대통령의 통치이념을 根底로 하고있으며, 지난 81년1월23일 死刑이 확정됐던 金에 대해 특별赦免으로 無期로 減刑조치했던 것과 거의 같은 脈絡에서 풀이돼야 할 것이다.

사실 金大中등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은 舊시대의 정치풍토에서 연유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수있다.

金은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戒嚴法등의 위반 혐의로 작년1월23일의 최종심에서 死刑이 확정 됐었다. 그러나 全대통령은 제5공화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和合의 완성과 80년대의 難局극복을 위한 국민總參與의 새시대구현을 위해 그를 無期로 減刑에 다시 관용조치를 베푼것이다.

이번 관용조치는 또 정부대변인인 李振羲문공부장관이 밝혔듯이 人道主義的인 배려가 크게 작용한것도 사실이다.

金은 교도소 收容이전부터 持病인 下肢浮腫症및 耳鳴症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같은 病症에 따라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동안 줄곧 미국에서 신병을 치료키를 희망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를 미국에 보내 치료키로 한것은 이같은 본인의 희망을 참작한 人道主義적인 배려에서 어디까지나 외부의 간섭이 없이 自主的으로 내려진 정치적인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이번 渡美치료허용조치에는 제5공화국 출범후 지난 3년간 이룩된 정치적성숙과 안정, 사회안정 경제발전등으로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읽을 수 있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부는 舊시대의 遺産인 긴급조치해제, 通禁해제, 校服자율화, 해외여행자유화등과 강한 開放정치를 펴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이룩했다.

정치적인 視角에서 보면 국회기능의 회복과 3黨대표회담등을 통한 對話정치가 정착 舊根돼감에따라 상당한 정치적 성숙을 이룩한것으로 볼수있다.

金에 대한 관용조치는 바로 이같은 정치적성숙과 자신감에서 취해진 것이며, 새시대와는 시대적 구분이 다른 舊시대의 정치풍토속에서 자라온 金에 대한 관용조치가 결코 새시대의 정치질서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도 볼수 있다.

舊시대에서 「反體制」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던 金의 時局觀이 제5공화국 출범후 서 각을 달리하게된것도 정부의 이번조치와 무관하지는 않은것 같다. 金은 지난해 1월 全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과거 국내외에 물의를 일으켜 국가안보에 누를끼친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었다. 또 수감중에는 정부기구축소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면회간 가족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온것으로 전해진다. 金은 지난해 1월의 탄원서에서 자신의 지난과오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정치에는 일체 관여치 않고 조국의 민주발전과 국가안보를위해 적극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제5공화국출범후 정부가 계속추진해온 和合정치, 국민大和合조치등과 같은 線上에서 이뤄진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돼야할것같다.

金에 대한 이번관용조치는 국내는 물론 對外的으로도 큰 호응을 얻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의 국제의회연맹(IPU) 서울총회를 앞두고 제5공화국의 새롭운 이미지를 해외에 投影시킬것으로 보이며, 86년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르게될 우리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이번조치를 발표하면서 ▲金大中내란음모사건 연루자 ▲光州사태관련자등 舊시대 혼란기에있었던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새시대에 同參할 기회를 줄것을 신중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관련자들에 대한 석방조치가 곧뒤따를것으로 전망된다.

金大中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는 당초24명, 光州사태 관련자는 82명이었으나 그동안 대부분 석방돼 현재에는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7명, 光州사태관련자는 8명만이 구속상태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조치는 舊시대및混亂期의 殘影을 청산하자는데 있는것이며 새시대의 정치안정을해치는 違法者들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겠다는 뜻은 결코 아닌것이다. 【李在武기자】

"私心버려야 國民이 신뢰" 全대통령、民正연수원 방문 諭示

全斗煥대통령은 16일 『과거 우리는 지도자들이 私心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중심으로 모든문제를 해결하려했기때문에 몇사람의 잘못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 『이런잘못을 반복하지 않기위해 우리는 모두 私心을 버리고 맡은바책임을다하며 단합정신에 투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서울江東區可樂洞에 있는 民正黨 중앙정치연수원을 방문, 교육중인 당원들에게 유시를통해 이같이 말하고 『몇사람의 사심이나 부정으로 全국민이 서로 믿지못하게된다면 그 해임은 면치못할것이며 진정한 정치, 경제의 안정이나 안보가 기약될수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3大社元심리추방운동과 관련 『올해의 안정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겠다』고 밝히고 『민주시민이 되려면 모두 법과질서를 지켜나가야 할것』이라고 준법정신을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내년도 올해의 경험을 살려, 안정속에 선진대국으로 발전하는 창조적인 해가 되어야겠다』고 말하고 『이를위해 民正黨이 국민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平統의원 招致오찬

全斗煥대통령은 16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강원도 江陵市, 경기江華郡, 충남靑陽郡, 전북淳昌郡, 경북達城郡, 경남陜川郡등 6개 지역의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1백81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베풀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앞으로 南北간 國力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상대도 안될만큼 벌어질것이며, 이렇게되면 우리겨레의 소망인 조국의 평화통일도 훨씬 앞당겨 달성하는 길이 열릴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새해에는 더욱더 모든 국민들이 화합, 단결해 국력신장을 위해 前進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孫在植통일원장관겸 平統사무총장이 배석했다.

阿洲스포츠 議長 오르디아氏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6일상오 靑瓦臺에서 아프리카 스포츠최고회의의 아브라함·오르디아의장(나이지리아人)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源京체육부장관, 鄭周永대한체육회장이 배석했다.

社会漫評

地平線

속칭 「괸돌」이라고도하는 거대한 돌구조물이 전국에 흩어져있다는 것을 우리는거의 잊어버리고 있다. 괸돌이란 「고인돌」의 준말로,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같은 유명한 것도있다. 거대한 板石을 여러개의 받침돌 위에 얹어서 마치 거대한 탁자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탁자형은 중부이북에서 흔히 보는 고인돌이다. ▼남한에 있는 고인돌들은 바둑판처럼 생겼거나 아예 받침돌 없이 거대한 바윗돌만 덩그렇게 놓여진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때 고인돌은 전국에 수천개쯤 될것으로 짐작했지만, 한조사로는 전라남도에만 5천5백개나 된다고한다. 이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illegible]의 무덤이 밭이나 들판에 우뚝 솟아있다는것을 아는사람은 역사를 공부하는학생이나 학자뿐이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대개 3~4톤에서 5~6톤이나 된다고 한다. 적어도 80명에서 1백명이 있어야만 운반할수 있는 무게다. 이 수수께끼의 무덤을 남긴 사람들은 언제 이땅에 살았을까? 나오는 유물로 봐서 그들은 청동기시대에도 살았던 것이 확실하다. 청동의 찌르개로 백성들을 호령하고 이끌었던 영웅들이었다. ▼청동기시대 이땅의 영웅들은 이상하게도 칼처럼 생긴 찌르개와함께 거울을 갖고 무덤에 들어갔다. 거울은 지금도 무당들이 귀신을 모실 때 쓰는 明圖라는 神器다. 그러니까 청동기시대의 영웅들은 백성을 호령하는 君長이자, 하느님을 모시는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에 적혀있는 檀君처럼 귀신도 모시고, 백성도 다스리는 소위 「司祭=王」이다. ▼우리의 청동기시대는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올려잡아도 3천년전을 크게 앞지를 수는 없다고한다. 그러나우리 檀君은 지금으로부터 4천3백15년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그렇다면 檀君은 청동기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신석기시대때 나라를 세웠단 말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청동기시대는 3천년전이 아니라 4천3백년전에 시작됐단 말일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동네 어귀에도 수수께끼의 증인들은 말없이 인간을 지켜보고 있다. 고인돌 무덤들도 그중의 하나다. 고인돌 무덤중에는 3천9백년전이라는 숫자가 소위 「방사성탄소연대」로 확인된 것도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司祭=王과 고인돌의 주인이 같은사람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더구나 檀君과의 관계도 장담할수가 없다. 교과서를 고쳐 쓰는 데는 그만큼 아직도 수수께끼가 많은 것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사펠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3불(우송료포함)
구독신청·한국일보사
533-23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1575 WESTON RD.
☎: 247-7161

가격을 대폭 내렸읍니다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
한국식품이라면 제일 식품
712 BLOOR ST. W. TOR. (아리랑 식당옆) 532-1054

中共 "美·日안보조약 支持"

駐日大使 비쳐 「臺灣접근경고」 조건부로

【東京=聯】宋之光주일중공대사는 15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방위력증강과 美日안보조약이 일본의 안전과 자위를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한다』고말해 중공이 美日안보조약을 조건부로 지지하고 있음을시사했다.

지난 여름의 교과서분쟁이래 鄧小平을 비롯한 중공지도층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우려하면서美日안보조약에도도전적 자세를보여왔었다.

宋대사는 현재의 日中관계가 지극히 양호하다고 만족을 표시 하면서도 日中관계에서 주의해야할점이 대만문제라고 강조、일본의 대만접근자세를 경고했다.

록히드醜聞 다나까 오는22일 2次公判

【東京時事=聯】일본 도오꾜(東京) 지방법원은 15일 美록히드항공사로부터 5억엔(약2백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나까(田中) 전수상에 대한 2차공판을 오는 22일 열기로 결정했다. 다나까 전수상(64)은 77년1월 첫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었다.

다나까 전수상과 4명의관련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구형공판은 내년2월에 있을예정이며 도오꾜 지법의 선고공판도 내년중에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레바논駐屯 外國軍 美、부분撤收제의

——드레이퍼特使、제마옐大統領과 회담

이스라엘·시리아·팔軍등 公路에서 우선 15km 후퇴

◇레이건과 레바논 副首相 레이건 美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訪美중인 엘리살렘 레바논 부수상겸외상을 만나고있다. 【워싱턴15日UPI特=聯】

【베이루트·예루살렘AP·UPI=聯】미국은 15일 레바논에주둔중인 모든 외국군의 완전철수를 위해 우선 중부레바논의 이스라엘군 시리아군및 팔레스타인군을 부분적으로 철수시키자는 새 철군안을 제의했다고 레바논방송들이 보도했다.

레바논방송들은 모리스·드레이퍼 미중동특사가 1주일간에 걸친 본국정부와의협의를 마치고 14일 베이루트에 되돌아 와 15일 아민·제마옐대통령및 사피크·와잔 수상과 2시간동안 회담, 모든 외국군의 레바논철수를위한 첫단계 조처로서 이스라엘군 시리아군및 팔레스타인게릴라의 부분철수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새 철군안은 중부레바논산간지역에 주둔중인 외국군이 베이루트·시리아간 각각15㎞씩 잠정적으로 후퇴하고 레바논정부군이 기독교민병대와 회교민병대간의 전투를 종식시키기위해 이지역에 진주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고 이방송들은 밝혔다.

베이루트의 西方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의 새 제안가운데는 레바논·이스라엘협상의 착수를 가로막고있는 문제점의 해결을위한 두가지방안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 외교소식통들은 그두가지방안이 ①이스라엘·레바논 왕복외교를 벌이고있는 미중동특사들의 도움을받아 협상을하되 ②협상장소는 파리나 키프로스같은 제3국을 택한다는것이라고 밝혔다.

이、레바논側과 會談 시사

政治 협정등 成果 얻을때

【예루살렘UPI=聯】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문제에서 만족을 얻을경우 레바논과타협한유일국가의 수도에서 이스라엘 레바논회담을 열것이라고 이스라엘관리들이 15일밝혔다.

이관리들은 이스라엘이 만족을 얻고자하는 문제가운데는 지난48년의 휴전협정과비슷한 제한된 군사협정 대신 ①공식평화조약체결에 접근하는 정치협정 ②가능한 한도까지의 관계정상화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관리는 이에 관해『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시리아국경의 현상보다 한층더 항구적이고 의미심장한 그무엇을 기대하고있다』고 설명했다.

蘇、86년에 金星에우주선 2基발사

【워싱턴UPI=聯】蘇聯은 오는84년 카메라가 장치된 2기의 우주선을 발사、金星표면에 로보트와 원형탐사기구들을 착륙시키고 이어 86년에는 사상최초로 이 우주선들을 핼리 혜성에 접근시킬 계획이라고 헝가리의 한과학자가 14일 밝혔다.

헝가리중앙물리학연구소의 토머스·곰보시박사는 미국 우주선 마리너2호의 첫金星비행성공 20주년을 기념하여 이날 행성협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 우주선들은 유럽8개국이 제공한 기계를 싣고가 유럽우주국이 원하고있는최종적인정보를제공할것으로 기대된다고전했다.

곰보시박사는『이같은 비행계획은 모두 인류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이라고 덧붙였다.

日북부 蘇作戰圈에

에또로후島에 미그21 10臺배치

【東京=聯】소련은 일본홋까이도(北海道)동북방의 에또로후(擇捉)섬에 이번주초 소련공군의 주력기인 MIG21전폭기 10대를 배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방위청소식통을인용, 보도했다.

작전행동반경 9백㎞ 최고속도 마하2·1의 MIG21은 홋까이도는 물론 미국F16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 미사와(三澤)기지등 일본의 동북지방을 작전범위안에 둘수있다.

방위청에 의하면 소련은 에또로후섬에 지금까지 배치했던 구형의 방공전투기인 MIG17기를 철수시킨후비행장 확장공사를실시해왔다.

방위청은 MIG21기가 미국의 F16에 대항하기위해 40대로까지 증강될것이며 최종적으로는 MIG23기도 추가배치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北傀대표 또醜行

FAO참석 和蘭시찰때

【헤이그AP=聯】네덜란드의 농업사업을 시찰중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대표단의 일원인 북괴대표가 강간혐의로 경찰에의해『수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네덜란드 외무성이 15일 밝혔다.

K로만 알려진 이 북괴대표의 추행사건은 암스테르담 동쪽의 간척지인 렐리스타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두라스 大統領딸 拉致犯에 굴복할듯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美)=聯】과테말라당국은 로베르토·수아소·코르도바 온두라스 대통령의딸 시아모라·수아소양(32)을 납치한 좌익게릴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것같다고 정부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과테말라시티에서 14일 수아소양을 납치한 정체불명의 좌익게릴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입장을 공표토록 요구하는 메시지를 과테말라정부에 보내고 17일밤10시30분(현지시간)까지 이메시지에 응답하라고 통보했다.

東獨에 核무기 저장

蘇、地下격납고에…領土밖으로는 처음

【본UPI=聯】소련은 그들의 영토밖에서는 처음으로 東獨에다 원자탄에도 견딜수있는 지하격납고에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밖에 수개 東歐국가들에 새로운 중거리폭격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서독국방성이 15일 말했다.

유르겐·라이하르트 국방성 대변인은 소련이 東獨의 4개기지에 프로그와 스쿠드미사일을 배치했으며 구형 프로그미사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시사주간 슈테른誌의 보도를 확인하고 西獨정부와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사령관들은 그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하르트대변인은 또 소련이 지난봄 白海에서 잠수함발사 신형 SSN20장거리미사일의 발사실험을 했다는 신문보도들을 확인했다.

社說

참된 大和合의 時代

—金大中 寬容英斷에 비친 우리道標

해묵은 큰 응어리가 하나 풀린것같은 느낌속에 國政의 가일층 명랑화와 국민和合의 보다높은 새段階 진입이 내다보이고 있다.

16일 政府대변인 李振羲문공부장관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그동안 국가보안법·계엄법등 위반으로 刑이 확정되어 淸州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金大中을 서울大學병원으로 이송, 持病을 치료토록 조치한데 이어 앞으로 그와 가족들의 희망을 참작, 美國에서의 身病치료를 포함하여 가능한 관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한다.

나아가서 金大中 내란음모사건 인투자와 光州事態 관련자들을 포함한 舊時代및 混亂期의 유사한 法위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社會 발전에 同參할수있는 기회를 주는 方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바야흐로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安定된 國政의 바탕위에서 內外風波의 진정을 아로새기고 제5공화국 출범 3년을 목전에 둔 싯점에서 時宜適切하며 크게 환영할 긍정적 조치를 대한것으로 평가된다.

그 관대한 方針과 英斷의 배경으로서는「舊時代의 잔재를청산하고 국민和合을 이룩하려는 제5공화국의 의지」와 더불어 全斗煥대통령의「각별한 人道主義的 配慮」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高度의 政治的判斷의 기반으로 돌것은 國政의 安定軌道진입이 확인된데 따른 自信感의 流露가 생각되는 바이다.

政治次元의 리더십에 보는 세련된 원숙성도 당연히 평가될수 있겠다.「용그같은 政治的 관용성에관하여는「용감한 사람만이 용서할수 있다」는 스턴의 갈파도 있으려니와「너그러운 마음씨는 사나운 말씨를 고쳐준다」는 호메로스의 말도 있음이 상기된다.

우리는 또 불행했던 지난날의 상처를 아물게하는 이번 조치가 안으로 국민大和合에 뚜렷이 기여함은 말할것도 없고、밖으로 在外同胞들의 따뜻한 祖國觀 정립 그리고 友邦국민들의 韓國觀 개선에도 현저히 이바지할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歷史的文脈을 살펴적에 언제건 새共和國의 수립을 동반한 새時代의 개막에 즈음해서는 舊時代의 人的構成및 過渡期混亂要因에 대한「수술」이 거의 불가피한 것이 예사였다. 그러나 새主導勢力에 의한 政治安定이 달성된 다음에는 국민和合과 民主主義의 土着化가 현실적 日程에 오르게 마련이다. 이점 全대통령이 영도하는 行政府가 제때에 政治的洞察力을 증명한 셈이다.

일찌기 全대통령은 작년 美國방문시 1월31일 뉴욕同胞招請리셉션에서「反體制者든 贊體制者든 모두 우리국민」임을 강조하면서 지난날 일에 무작정 구애되지 않는「국민總參與의 새時代 개척」의지를 피력한바 있었다. 이로써 과거 70년대에 빚어진 偏差와 不和및 兩極的갈등의 解消를 지향하는 국민和合理念이 강조되었거니와 이번 조치는 바로 그 가장 뚜렷한 실천적 증명이라고 봄직하다. 회고하면 70년대와 제5공화국 출범前夜의 政治的갈등이란 실상인즉 舊時代的 統治方式을 에워싼 비판과 응수에 불과했던것이다.

그럴수록 이제 지난날의 불행했던 유산과는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계기가 도래하고있음을 느낀다.국민 모두가 과거지사에 구애되지 않고 心機一轉의 국민和合과 總參與진작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원래 韓國的心性의 본바탕은 따뜻한 人情과 후훈한 義理를 기조로 삼는 和合의 얼로 풀이된다.반면에「恨」의 응어리란 불행으로 말미암은 왜곡형태에 불과하고「멋」의 희구란 그 일시적 발산형태임에 그친다. 和合의 지향을 상호 信賴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무거운 구시대의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참이다. 政府의 金大中渡美치료 허용에 보는 관대한 조치를 거듭 환영한다. 동시에 국민적 大和合을바라보면서 스스로 이런英斷的조치를 취한 政府의 진의를 깊이 새기고 보다 安定되고 正義로운 福祉국가건설에 힘을 합쳐가야 하리라고 보겠다.

前線으로 歲暮人情을

—雪寒속에 밤새는 兵士들 잊지말자

오늘 하루쯤、이제 마음의 향방을전선으로 돌려 60만장병들과 세모의 情을 나누어야 할것같다. 어제 내린 눈으로 고지나 계곡은 완전히 雪寒으로 뒤덮였다.

뼈를 에는 삭풍마저 세차져 글자그대로 氷下전선이된지 오래다. 하늘과 바다의 한기는 물보다 한층더할것이 분명하다.

국민의 젊은 아들들은 지금 그런空間에서 보초를 서고있다.파수군과 불침번 노릇을 하고있는것이다. 한밤을 뜬눈으로 새고 눈바람·비바람을 무릅쓰며 적을 감시·견제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모두들이 한집안의 귀한 자제이자 나라의 청춘들이다.學歷으로도 고교수학이상의 젊음이며 후방에있다면 좀더 향학의 기회라도 갖고파할 그런나이 또래의 병사들이 대부분이다.

하나 전선생활속에 그같은 낭만의 여백은 없다. 敵과의 대치거리는 시간상으로는 전혀 없는것과 같다.무슨 짓을 언제 저들이 해댈지 모를상황하에서 방위의 尖端에 서있기때문이다.

철조망과 지뢰밭,토치카나 포대가 긴장을 자극시키는가하면 적의 시끄러운 심리전방송 또한 그칠줄 모른다. 虛만보면 달려들고 틈만 있으면 스며들려는 북괴측의 저의와 동태는 지금도 여전한 실황인것이다.

4천만의 보초들은 바로 그적과 맞붙어 오늘도 전선에서 꼼짝을 않는다. 그들을 경계·응징하여 나라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一念에서 자신을 불태우고 싸우며 사는것이다.

그들앞에 이제 嚴冬은 닥쳐왔다.모두가 즐기려는 성탄·세모·신정의 명절시즌도 다가선참이다. 겨우살이 대책은 물론 빈틈없지만 명절맞이 준비란 그저 명색에 그칠뿐、흐뭇한게 있을수 없다. 그보다는 후방의 명절·내동네의 명일·고향집의 평안과 행운을 비는 마음들을 더 앞세우며 지내는게 고작일것이다.

年末年初의 그명절까지 이제 며칠안남은 하루하루를 다함께 이런장병을 생각하며마음과체온을 서로이어보았으면 한는것이다.하루 한번이거나 1주에 한·두번정도라도 좋다. 雪氷寒風에 시달리는 우리장병들의 勞苦를 우선 생각할줄 알아야 할일이다. 主한미군장병도 빼놓을수는 없다.

고마움은 틀림없이 정성으로 연장될것이다. 한장의 글월이나 마음 따뜻한 위문품을 보내게도 될수있다.찾아서 손길을 잡고 對話라도 나누면그 성의는 여러전우와 부대안을 밝혀줄수 있을법 하다.

후방으로 부터의 이같은 마음의 행렬은 능히 한겨울 야전생활의 고통을 덜며 녹여줄지도 모른다. 얼어붙기쉬운 전선장병들의 손발을 감싸며 의기를 북돋게 하는 격려로 통할것이다.

그것은 또 적전에서 더욱 충실하고 용감한 방위활동을 전개케 하고 사소한 敵情이라해도 예리한 눈매를 부릅뜨게하는 활력소같은 작용을 보태리라고 보겠다.한장의 위문편지나 한번의 악수가 곧 軍民一體와 護國의힘으로 승화될을 알수있게한다.

그렇다고 요란스런 캠페인결과나 형식적으로 보내는 따위의 편지및 위문품을 권하려는것은 물론아니다. 서툰 글귀가 섞였더라도 장병들을 진심으로 대하려는 心性이 서린 것이면 그 이상 값진것은 없을듯하다. 風物한하는 小品하나일지라도 그속에 장병들을 아끼며 뜻을함께하려는 진실성이그득할진대 그보다귀한것 또한있을수없다.

우리 둘레엔 지금도「愛國」을 운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 누구보다 눈으로보고 피부로 느낄수있는 산 애국자가 최전방을 지켜주는 오늘의 전선장병들이라 하여 과언은 아닐것이다. 깨알같은 우리들의 사랑과 후훈한情이 차분하게 모여지고 보내지기를 거듭바라고싶다.

記者의 눈

不況과 貿易전쟁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이 이제나저제나하고 세계경기회복을 고대하고있지만 아직도 전망은 신통치가 않다.

최근 韓國產業經濟技術硏究所(KIET)가 내놓은 세계경기전망을보면 내년에는 최악의 불황에서는 일단 벗어나겠지만 성장의 도약대가 낮고 본격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불안요인이 아직도 남아있기때문에 평균 2~3%의 低成長에 머물고말것같다는 분석이다. 별로 고무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런가하면 24개 선진국들인 OECD제국은 실업자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자 지금까지 실업대책으로는 禁忌視해오던 임금삭감안을 활발히 논의하고있다는 소식이다.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실제로 임금삭감을통한 실업확산방지를 계획하고있고, 西歐각국들도 그간 실업대책으로 실시해온 보호무역조치나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금융완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이젠 높은 임금수준을낮춰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지난20년간 상대적으로 감소해왔던 기업이윤을 회복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고용기회를 늘리는수밖에 없다는 주장인것이다. 정부가 몇년전부터 임금인상률을 통제함으로써 논란을일으켰던것을 상기하면 今昔之感이 없지않다.

지난14일엔 세계의 저명한 경제전문가28명이 세계경제회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경제를 현재대로 내버려뒀다간 큰일 나겠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것같다.

알란·그린스팬 前美大統領경제자문위원장, 로렌스·클라인 노벨경제학상수상자, 레스터·더로「제로섬社會」저자등이 서명한 경제전문가 성명서는 세계가 지금 경제위기에직면해있으며 불황의 깊은늪에서 自生的으로 조속히회복될 전망은 희박하다고진단하고 만약 경제회복이실현되지않으면 무역전쟁촉발、국가간平價切下경쟁、금융질서붕괴등으로 2차대전이후 형성된 상호의존적 세계경제체계가 붕괴되고말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성명서는 결론적으로 세계경제회복을 위해서는 美國만을 바라보고 방관할수도없고 美國또한 자신의 힘만으로 세계경기를 회복시킬수도없는 일이니 국제적인 협조아래 인플레 재발이없는 범위안에서 합리정책을 펴나가야한다고 처방을 내리고있다. 별로 뚜렷한 처방도 아니지만 보는눈은 역시 같구나하는것을 실감하게된다. 서로가 자기혼자만 살려고 하다가는 모두가 죽게된다는것이 요지인것같다. 【崔相泰기자】

바웬사暗殺 지령받아

敎皇 암살미수범 아흐자

【로마ANSA=聯】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의 암살미수범으로 현재 이탈리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터키인 아흐자는 지난 81년1월 폴란드전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로마를 방문했을때 그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불가리아의 비밀정보원으로부터 받았었다고 이탈리아의 2개일간지가 15일 보도했다.

로마에서 발행되는 중도좌익지 라·레푸블리카와 밀라노에서 발간되는 보수지 일·지오르날레·누오보는 이날관련기사를 통해 그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신문들은 아흐자신이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 폭로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경우 이는 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의 배후조종하에 불가리아 정보원들이 폴란드 태생의 교황과 바웬사를 암살함으로써 폴란드정국을 곤경에 빠뜨리려했다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를 마련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交易확대논의 金총리·칠레大統領

【산티아고=河長春특파원】金相浹국무총리는 칠레방문 이틀째인 15일상오 (韓國시간15일밤) 대통령궁으로 아우구스토·피노체트대통령을 방문, 東北亞및 中南美정세와 양국간의 交易및 문화교류증대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약30분간 계속된 이날 요담에서 金총리와 피노체트 대통령은 韓·칠레 두나라가 反共투쟁에있어 같은 입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국이 경제·문화·군사적인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기로했다.

本社來訪

朴宗雨씨 (서울시 內務局長) =신임인사차

政局往來

"국민和合의 場으로 확산돼야"라며 後續조치 期待

◆北韓주민들신발도구하기힘들어

全斗煥대통령은 16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靑瓦臺에서 平統자문위원들에게 오찬을 베푼 자리에서 北傀의 南侵도발가능성을 경고.

全대통령은『최근 北韓은 주민들이 제대로먹지도 못하고 신발도 구하기 어려운 등 경제사정이 말이 아닌데다 불만이 한계에 달해 주민들이 金日成의 銅像을 부셔버릴 만큼 곤경에 처해있다』면서『따라서 北韓은 金日成체제가 붕괴되거나 주민들의 불만과 관심을 돌리기 위한 마지막수단으로 준비된 군사력을 동원해 南侵도발의 불장난을 감행할 위험이 증대되고 있기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平統자문위원들이 지난 한해동안 우리의 통일정책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통일에 대한 신념을 심어준데 대해 치하.

◆"대단한뉴스아니다"끝까지煙幕

「金大中의 서울大병원移送」은 정부가 16일상오 공식발표할때까지 철저한 保安속에 진행.

文公部는 이날아침 各언론기관에 전화를걸어『11시에 정부대변인 李振羲문공장관이 某種의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고 이어 중앙청기자실로 달려간 기자들이 발표를 기다리는동안 문공부직원들은『별로 대단한 뉴스가 아니다』고 煙幕을 치기까지.

李장관은 이날상오 10시30분부터 총리、부총리의 해외출장으로 李範錫외무장관 사회로 열린 국무회의에 許文道차관을 대리 참석시키고 11시정각 金大中에대한 정부조치를 3분간 발표한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 發表文을 다시한번 낭독했는데 이를들은 대다수의 각료들은『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는소식.

한편 이날 발표직후 한소식통은『이번 정부의 조치를 확대 해석하거나 추측이나 억측을 하면 誤報가 될것』이라고 말하기도.

◆이보다 다행스러운일 어디있나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16일 金大中씨의 석방에대해『南國의봄이 풀렸으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있느냐』고 반가운 표정.

柳총재는 이날 당사에나와『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민주정치발전에 도움이된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국민和合의場으로까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또한번의「後續조치」를 기대.

그는 지난6월의「靑瓦臺회담」을 잠시 상기시키면서『지난일이지만 그때 金씨문제를 공식 제의했었다』고 秘史(?)를 공개하기도.

劉沃祐·李泰九부총재도『정말다행스러운일』이라고 기뻐하면서『이러한 和合의조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

◆政府、各黨당수들에 事前통보

정부는 金大中의 석방조치를발표하기 하루전인 15일 상오 서울시내모처에서 民正黨 고위당직자들에게 철저緘口를 전제로 야당총재들에게는 16일상오에 내용을 事前통보.

그러나 民正黨당직자들은 16일상오 정부가 정식발표하는 순간까지 계속緘口로 일관했는데 金瑢泰대변인은『구속자석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전혀 모른다. 혹시알면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수를 더 뜨는가하면 尹碩淳사무차장은『전혀 짐작하지 못하겠다』고 시치미.

權翊鉉사무총장은 평소보다 늦은 상오 9시30분께 출근、尹碩淳·李相宰사무차장과 金대변인을불러 정부발표에 대비한 논평文案을 최종손질했다.

◆『感잘못잡았다』에『지금이適期다』

국민당과 議政同友會가 정치解禁案을 기습제출한데 대해 民正黨직자들은『感을 잘못 잡은것같다』며 불쾌한 반응.

李鍾贊총무는 16일상오『市中의 풍문을 의식해 제출한 모양인데 불쑥 낸다고해서 被규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며『국민당의 解禁案은 民韓黨案과 마찬가지로국회에 계류시킬 방침』이라고 부연설명.

한편 解禁案을 낸 李東鎭국민당총무는『1주일전부터 解禁案을 제출하느냐의 여부로 苦心해왔다』며『새해예산안의 만장일치 통과、내년 IPU서울총회등을 앞두고있는 이시점이解禁의 適期라고본다』고.

ZENITH

최신형 제니스 비데오 출연

기간 : 12월31일(금)까지

스페샬가격 : $895.-

FINCHWEST MALL
348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아카데미 TV. STEREO

대표 : 전 광 제 ☎ 745-5555

"政治발전의 새로운章"

"국민和合·同參의 계기 「지난날의 傷處」아물게

◇歲暮…함박눈…釋放… 함박눈이 내리는속에 16일 상오 「金大中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며 신문 街販과 벽보를 읽고있다.

"온국민 진심으로 환영 세밑政局 가장 큰 朗報"

金大中석방·渡美… 各界의 표정

舊시대혼란 극복

▲羅碩昊의원 (民正) ‖ 舊時代를 청산하고 제5공화국이 화합할수있는 계기를만든데대해 적극적인 환영의뜻을 표한다。모든사람들이 국가발전에 참여할수있는기회를 준다는것은 바로5공화국이 지향하는 새국가건설 의지의표현이며 5공화국이 舊時代의 혼란을극복하고새로운정치풍토를 정착화시키는데 全斗煥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린것으로 크게 환영한다。우리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발전에 흔쾌히 참여할수있는 계기가되고 5공화국이 안정기반을구축하는데 크게 공헌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解禁 후속조치를

▲高在淸의원 (民韓) ‖ 정부가 金大中씨를 석방조치하고 光州사태관련자등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것은 온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조치는 그동안 우리黨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결과의 소산으로 믿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정치 被규제자와 연관자를 조속히 해금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조치는 국민화합은 물론 정치발전의 한장을 마련할것으로 보며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모든政治犯 석방을

▲李萬燮의원 (국민) ‖ 정부가 아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며 정국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찾을수있다。이번조치를 계기로 光州사태뿐 아니라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여 그들에게 同參의 기회를 주는 아량을 베풀기를 기대한다。이번 조치는 민주정치의 진일보를 의미하는것이며 정부는 계속해서 국회 및 야당의 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대화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外交面서도 플러스

▲金溶鉉씨 (67·대한辯協회장) ‖ 金大中사건은 국내외에 관심이 많았기에 국민화합을위한다는 의미에서나 외교적인 면에서나 큰 플러스가 될것으로 믿어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용단을 환영한다。

金씨도 정부의 선처를 잘 받아들여 과거의것은 모두과거로 돌려버리고 앞으로는국가와 국민을위해 동참하는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

國威높인 결과될듯

▲柳琦諄씨 (中小企業중앙회장) ‖ 全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에 의한 이번 석방조치는 정치적 성숙과 자신감을 보인 영단이다。

지난날의 상처를 아물게하고 국민화합분위기를 한차원 높여준 조치다。민주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고 국위를 높이게한 결과가 될것으로 믿는다。

「서로의 갈등」해소

▲朴鍾夏스님 (曹溪宗總務부장) ‖ 국민 화합적 분위기를 이룰수있는 긍정적 조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도급 정치인이나 국민 모두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바르고 순수한 時局觀을 가지고 정치、경제、문화등 모든 부문에서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번 조치는 큰역할이 될것같다。앞으로 온국민은 분렬없는한 統一體로 함께 걸어나가야할 것이다。

不幸한 遺産청산

▲沈相宇의원 (民正) ‖ 歲暮의 정국에 주는 가장 큰선물로 이번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5공화국이 舊時代의 불행한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본격적인 정국안정의 기틀을 다졌다는 자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의 同參에 의한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수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光州사태관련자에 대해서도 寬容을 베풀어 그들이 밝은하늘아래에서 열심히 生業에 종사할수있는 기회를 주기를 기대한다。

「옛과제」에 靑信號

▲辛相佑의원 (民韓) ‖ 먼저 全斗煥대통령의 英斷에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5공화국이 출범한지 2년이지난 이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高次元的인 정국안정을 기해야할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국민화합을 위한 활력소가 되고 묶였던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靑信號가될 것이다。

이같은 조치의 연속은 그동안 많았던 신뢰회복을 가져오고 자신있는 정부의 면모를 내외에 확신케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는다。

한국 이미지되살려

▲朴定洙의원 (國政) ‖ 국민화합을 토대로한 민주발전을 기하려는 정부의 일대결단이요 의지의 표현으로보고 환영한다。

우선 내년 서울IPU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것이 틀림없다。

총화단결의 계기로

▲金斗鉉씨 (前대한변협회장) ‖ 정부의이번조치는국민총화단결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최근들어 국내경제가 회복기에접어들고 정치역시 안정되고있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번조치는 이를 반증하는것으로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준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인 면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자신감은 외교상 상당한 이득이 돌아올것으로 전망된다。

뼈아픈體驗 승화를

▲車凡錫씨 (극작가) ‖ 정부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내가 듣기에는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해서 몸이 쇠약해 진것으로 알고있다。앞으로 생활은 정치적인 일과 상관이 없겠지만 그동안의 뼈아픈 체험을 모아서 이나라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에 참여했으면 싶다。

「마음의平和」찾길

▲朴弘신부 (西江大교수) ‖ 그동안 마음에 상처를입었던 金大中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찾아온것을 다행으로생각한다。金大中씨 자신도 앞으로 상처투성인 모든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감싸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그리고 이땅의 모든인간관계가 미움을바탕으로하는 풍토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사회의그늘 없앤것

▲柳在用씨 (소설가) ‖ 국민총화라는 점에서 크게환영하고싶다。그가 석방된것을 우리 사회의 그늘을 하나 없앤것과 같다고 본다。

새국가건설 合心을

▲鄭學圭씨 (주부) ‖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앞으로 모두가 지난날을 잊고 和合、새국가건설에 합심하여 훌륭한 결실을 맺게되기를 기대한다。

金大中사건 日誌

◇80년

▲5월18일=金大中·芮春浩씨등학생선동 배후조정 혐의로 연행。

▲5월22일=계엄사, 金大中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정부전복기도, 대학소요와 光州사태배후조정 혐의。

▲7월9일=金大中등 관련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환관리법, 계엄법등 위반혐의로 구속。

▲7월12일=陸本비상계엄 보통군법회의에 구속송치。

▲7월31일=戒嚴軍檢검찰부 金大中등14명 구속기소。

▲8월14일=戒嚴보통軍法첫공판。

▲9월17일=계엄보통군재 金大中에게 사형선고。文益煥, 李文永피고인은 징역20년, 나머지 21명은 징역15년~2년선고。

▲11월3일=계엄고등軍法, 金大中에게 사형선고。李文永 20년, 金允植·李宅敦피고인은 집행유예, 文益煥·韓勝憲등 7명은 減刑。

▲11월4일=관할관 확인과정에서 徐南同·韓完相 피고인등 4명 刑집행면제로 석방。

◇81년

▲1월23일=대법원 전원합의체 金大中관련피고인 12명 전원 상고기각。金大中사형확정。

▲同日=대통령의 특별赦免으로 사형에서 無期減刑。

▲1월31일=淸州교도소로 移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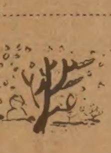
◇82년

▲3월3일=대통령 취임 1주년맞아 金大中 무기에서 20년으로 특별감형。李文永은 15년에서 8년으로 감형하는등 나머지 11명도 감형。芮春浩·金鍾完씨등은 刑집행。

▲8월15일=광복절 맞아 金相賢·高銀泰씨등 刑집행정지 석방。

메아리

눈 오는 날



金聖佑 <編輯委員>

서울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렸다.

눈은 언제보아도 포근한 安穩感과 平和感을 준다。그리고 아름답다。老少나 貴賤을 불문하고 또 마음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다。

눈은 산이나 들판에 쌓여 遠景으로만 아름다운것이 아니라 눈의 結晶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微視的으로도 아름답다。눈의 結晶이 6각형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안다。눈은 하나의 중심에서 여섯방향을 향해 對稱的으로 발달한 모양을 이루고있다。이 對稱이 세부까지 하나하나 빈틈이없다。

눈의 結晶이 6각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한것은 1250년경이었다。이것이 세상에 공표된것은 1555년이 처음이다。현미경이 나오기 훨씬 전인 1635년에 데카르트가, 그리고 1681년에는 로제티란 사람이 60개의 눈의 結晶을 模寫하여 5종으로 분류했다。1951년 브뤼셀에서열린 地球物理學회의에서 정한 눈 結晶의 분류표에는 8가지가 나와있다。중심에서여섯방향으로 가지가 난 星狀結晶이 있는가 하면 正6角形의 널빤지모양인 角板도 있다。그러나 이것은 대체적인 모양따라 크게 나누었을뿐, 눈의 結晶은 똑같은것이 없다。월슨·벤틀리란는 사람은 50년동안 눈 사진을 찍어 조사를 했지만 같은 結晶을 하나도 찾지못했다。

눈의 結晶은 크기가 작은것은 1㎜전후, 큰것은 5~6㎜쯤 되어 肉眼이나 확대경으로 그 神秘境을 볼수는있으나 倍率높은 현미경을 통해 보는것이 아름답다。

눈을 슬라이드글래스에 담아 들여다보자면 아무래도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눈結晶의 레플리카를 만든다。樹脂를 녹인 溶液을 눈의 표면에바르면 섬씨 영도이상에서도 녹지않는다。

내리는 눈을 실제로 관찰해보면 책에 그려진 그림대로의 눈이 안보일때가 많다。내려오는동안 공기조건에 따라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갔거나 표면에 雲粒이라 부르는 얼음粒子가 붙어있거나해서다。이런눈은 結晶의 美가 이그러져있다。

눈은 내리지만, 펄펄날릴때는 秒速0、3m내지는 1m의 속도로 내리지만 그리고 기온이 비교적 따뜻하면 수백개의結晶이 한덩어리가되어 質量 3㎎내지 10㎎의 雪片으로 내리지만, 그아름다운 눈에대해 아직 모를것이많다。눈의 結晶은 왜 6각형인지, 그 6각형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왜 똑같은 모양은 하나도없는지, 이런것이 미스테리인채 눈은 내리는것이다。눈내리는 날은 그神秘가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童心의 세계로 만든다。

독일 그림형제의 童話集에는 홀레라는 하늘나라의 할머니가 침대를털어 소제를하면서 깃털을 날리면 인간세계에 눈이 온다는, 민간설화에서 취재한 동화가 있다。홀레할머니는 게르만神話에나오는 훌다女神이 인간 세계로 變身한 것이다。훌다女神은 인간 특히 부인의 守護神이다。天上의 산속에 살면서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주기위해 매년 지상으로온다。각가정의 집안이나 들이 잘 정돈되어있지않으면 언짢아한다。어린이를 귀여워하여 어려서 죽은 어린이는 자기나라에 데리고 간다。안데르센의 동화에서 「성냥팔이 소녀」는 눈이 펄펄내리는날 행복을 꿈꾸며 죽어간다。이 소녀를 할머니가 안고 하늘로올라가는데 이할머니는 결국 홀레할머니의 變形이다。

눈은 이렇게 慈悲와 은총과 사랑의상징이다。눈이 내리는 날은 홀레할머니가 오시는 날이다。

올들어 눈다운 눈이 처음 내리던날, 結晶이 신비스럽게 아름다운 눈이 온누리에 平和롭게 내리던날, 金大中은 큰 은총을 입었다。

각國의 反應

美"「政治的 調和」" 확신

LA "한국서 온 큰 X-머스膳物"

日 "韓·日관계 좋은영향 미칠것"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미국무성 동북아담당 노먼·바즈 대변인은 15일밤 한국정부의 金大中및 그가족에 대한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즈대변인은 『金씨조치에 대한 보도를 보았다』며 『金大中씨가 감옥에서부터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金씨에 대한 조치가 全斗煥대통령의 개인적인 영단에 의한것임을 믿고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정치적조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오10시 서울에서의 보도에 따른 기자들의 질문에 발츠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이같은 국무성의 태도를 밝혔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가에서는 金씨가 곧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에 올 것이지만 어느 병원에 어떤 절차를 거쳐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요미우리신문등 일본의 주요일간지는 金大中의 병원이송조치를 16일자석간 1면머리기사로 크게 다루었으며 TV방송들은 특별뉴스로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金大中을 석방함」이란 표제로 「서울 발신보도를 인용, 우선 병원으로 이송한후에 미국으로 출국이허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말했다。

일본신문들은 한국정부가 金大中을 병원이송조치한것은 정국의 안정과 자신감에서 나온것이며 인권문제를 에워싼 對外자세의 유연화를 드러낸것 이라고 논평했다。

한국정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복역중인 光州사건관련자에 대해서도 관대한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인다고 관측보도했다。

한편일본정부도金大中에대한병원이송조치에대해환영하고 한·일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나까소네 수상은 이날金大中의 병원이송에대한 소감을묻는 기자질문에 대해 『한국의 내정문제이므로 발언을 삼가하겠다』고 전제, 『인도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무성당국자는 「예상하지 못한일이다。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는 인도적인면에서 취한것으로 평가, 환영한다。한·일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로스앤젤레스支社=遠濟鎬기자】 서울로 부터의 金大中 출옥소식은 美洲최대의 동포사회인 LA한인사회는 물론 동포들이 살고있는 많은 지역에서 『한국에서 온 가장 커다란 크리스마스선물』로 파악돼 갔다。

많은교포들은 『국민화합을 위한 인도적조치는 새로운 단합의 세대를 1983년에 여는 계기』라면서 정부당국의 조치에 대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LA한인교회중의 하나인 동양선교회의 任東善목사는 『성탄절에 맞보는 가장큰 소식』이라면서 「서로간의 화해가 필요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조치」라고 기쁨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南加州지역에서 청소년구원사업에 열의를 바쳐온 남가주대학교의대교수 노준회박사는 『이번 석방조치는 한국의 정권이 안정됐다는 표현』이라면서 『정말로 정부당국의 조치는 잘한일이며 아주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옥중에있는 李信範씨의 부인인 LA거주 유명자씨는 『정부가 이번기회로 모든 사람에게 사회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마련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내남편도 석방되어 미국의 가족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당국의 극적인 발표소식은 한국일보 LA版 15일자 (미국시간) 석간판으로 처음 한인타운 신문가판대로 배달되어 가면서 외식하러 식당에온 교포들, 그리고 장을보러나온 교포들에게 먼저알려져 신문가판대는 순식간에 많은사람들로 붐볐다。

또한 신문가판이 나간후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전화가 본보LA支社에 쇄도했는데 한독자는 『말할수 없을 정도로 기쁜소식』이라면서 『정부의 인도적조치가 계속되기를 염원한다』라고 말했고 시간이흘러감에따라 이소식은 멀리멀리 퍼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댈라스, 휴스턴등지의 교포로부터도 문의전화와함께 정부당국조치에 기쁨과 환영을 나타냈다。

한편 LA타임즈와 뉴욕타임즈는 16일자 신문에서 이사실을 중요뉴스로 게재했으며 CBS 뉴스방송, ABC라디오뉴스, NBC계열 KFWB뉴스 방송도 金씨의 석방보도와함께 병치료차 미국에 올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陸路개방…환호하는여행자들 일단의 스페인인들이 15일 개방될 지브롤터 접경지역에서 여권들내보이며 장사진을 치고있다。스페인社會黨정부는 지브롤터국경을 개방했다。【지브롤터15日AP=聯合】

◇海洋衛星이 찍은 地形사진 美國의 海洋衛星이 최근 전송해온 世界의 海洋地形사진。深海의 斷層과 水面밑에 깔려있는 水中山脈을 뚜렷하게 보여주고있다。【키스톤=聯合】

海外토픽

레이건 暗殺협박장

★美「藥禍관련」 루이스夫婦

티레놀藥禍사건과 관련、공갈혐의로 구속된 루이스씨부부를 조사중인 미수사당국은 이들부부가 레이건대통령에게 암살위협 편지를 보낸 사실을 밝혀냈다고 15일 말했다。

웹브美연방검사는 루이스부부가 티레놀藥禍사건으로 7명이 사망한뒤 지난10월초 티레놀제조회사인 존슨·앤드·존슨사에 1백만달러를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보낸데 이어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띄웠다고 밝히고 두개의 편지에는 동일한 소인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시카고=UPI】

美議員 연봉인상

★俸給낮으면政府質도낮다

미하원은 최근『봉급이 낮으면 정부의 질도 낮아진다』는 일부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회의원들의 연봉을 9천1백달러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원의원들은 의원연봉을 6만6백62달러 50센트에서 15%인상한 6만9천8백달러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3백3대 1백9의 압도적표차로 통과시키는 한편 뒤이어 제출된 연봉 인상반대안에대해서는 찬반동수로 결국 부결시켰다。【워싱턴=UPI】

귀에침놔 담배끊게

★中共南部의 漢醫들

중공남부의 의사들은 흡연자들의 귀에 침을 놓아 담배를 끊게하고 있다고。

한 보도에 따르면, 중공남부 광동성의 한의학연구소의 침술사들은 귀의 급소부분들에 직경2㎜의 침을 놓아 흡연심리를 억제한다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어학을 가르치고있는 2명의 유럽여성이 침을 맞고 담배를 끊었다는것。

이 유럽여성들은 담배를생각할때마다 진저리를 치게된다면서 자기들나라의 흡연자로부터 섭외가 올것이 두려워 이름과 국적은 밝히기를 거부했다고。【北京=UPI】

屍身무게 3百58kg

★消防장비 동원 옮겨

美캘리포니아 샌타애나의 검시관사무실은 체중이 3백58kg이나되는 윌리엄·라이올즈씨의 시신을 시체안치소에 옮기기위해 소방서장비를 동원해야만 했다고。

소방서 갑부 짐·벨튼씨는 14일 라이올즈씨의 시신을 집밖으로옮기는데 10명의 의료보조원과 소방수들과 가로 3·6m、세로5·5m짜리 담요와 섬유유리판자、7m짜리 사다리등 소방장비가 동원됐다고 설명。【샌타애나=UPI】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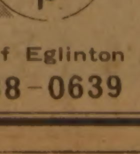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認許可민원 326件 간소화

內務部 41건은 어제、나머지는 내년初부터

자동차移轉등록 서류 3종 줄여

申告폐지 31件·기간단축은 92件

百19件 書類감축、59件은 下部위임

각종민원사무가 대폭 간소화된다。 내무부는 16일 위험물운반신고와 개간농지면세 신청을 폐지하는 등 각사무 일선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3백26건의 인허가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중 지방자치법규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41건은 16일부터 간소화하며 나머지 2백85건은 13개 관련부처의 처리규정이 개정되는대로 내년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민원업무간소화는 사회여건 변동으로 31건은 신고자체가 필요없도록 폐지하거나 인허가사항을 신고만하도록 했으며 이미용업소명칭변경신고등 1백19건의 민원은 첨부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도록했다。 이에따라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서류중 발급기관과 접수기관이 같거나 중복될때는 이를 폐지하게 됐고 연탄판매업신고등 92건의 민원은 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59건의민원은 하급기관에 처리권한을 위임했다。

내무부는 이번에 개선한 3백26건의 민원외에도 법률개정하여 개선할 민원이 21건이나 있는것으로 판단, 내년 국회에서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규제 완화… 시군구에서 접수하던 위험물운반신고 개간농지면세신청 압류재산 해제신청 목탄생산허가등은 허가나 신고를 폐지하는등 모두 31건의 민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첨부서류간소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경우 신청서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양도인인감증명 자동차거래사실증명서 증여증서 호적등본 자동차검사증등 복잡한 서류중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거래사실증명서등 3종을 제외했다。 또 이미용업소명칭변경신고는 5종의서류중 신고서 양도양수서 개설신고필증으로 줄이는등 1백19건의 민원은 첨부서류를 대폭줄였다。

…처리기간 단축… 시도에서 접수 6일만에 처리하던 공연자 등록신청은 즉시 처리하고 읍면동에 신고하던 연탄판매업소 신고는 3일이전을 1일로,공장이전신고는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등 91건의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처리권한 위임… 59건의 민원이하급기관으로 위임됐다。 보사부가 맡아온 제3종 전염병 요양소 설치허가는 시 도로, 종자판매업 허가는 시도에서 시군으로,위험물 취급소 설치신고는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로 위임했다。

…경유기관 조정… 읍면을 경유하여 시군에서 접수하던 양곡가공공장 변경승인을 시군에서 바로 접수하고 도로공작물 설치허가는 도로점용 허가와 통합하는등 26건은 경유기관을 줄였다。

◇민원개선내용

◇**규제완화** (31건) ▲압류재산 (물품) 해제신청 ▲간척농지세면세신청 ▲목탄생산허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교부신청 (폐지)

◇**첨부서류감축** (19건) ▲민방위대교육훈련유예신청 2종~1종 ▲독자확인원 3종~2종 ▲국유림사용허가 10종~8종

◇**처리기간단축** (91건) ▲토석채취신청 30일~20일로▲농약판매업등록신청 20일~10일 ▲공중목욕탕허가증재교부신청 4일~즉시

◇**하급기관위임** (41건) ◆시도→시군 (36건) ▲국유림입목벌채승인▲국유림연대보호수락신청▲토석무상양여신청▲특별보호구역내 입목죽벌채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대리점) 변경허가 ▲석유판매업 휴지신고 ▲보안담당자 선·해임신고▲전기보안담당자 겸임승인신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공중목욕탕허가증 재교부신청 ▲국유재산 (도로 구거 하천) 용도폐지 ▲주택자재 생산업등록▲창고업허가▲창고요금인가신청 ▲창고업자간 협정등의신고▲창고업의 양도 양수허가신청▲공연장설치허가◆시 군 구→읍 면 동 (5건) ▲위험물 소방취급소의 설치신고 (소방서→소방파출소) ▲사설묘지 설치허가신청 ▲개장신고▲매장 화장신고 ▲묘지이외의 토지에매장된 사체등에 대한 개장신고

◇受驗生반기는 함박눈 고입선발연합고사가 끝나고 수험생들이 고사장밖으로 쏟아져나오자 세설 (細雪) 은 함박눈으로 변해 초조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었다。 수험생들은 이날 고사장밖에서 기다리던 부모들과 만나 모처럼 눈속의 가족동반점심을 먹느라고 음식점들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하오 1시30분 서울大光고교앞】

密獵…6명拘束 29명立件

江原道警 올가미·毒劇物 不法사용

【春川】 강원도경은 16일 금렵조치가 해제되면서 밀렵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착수,올가미·독극물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야생조수류를 포획해온 安창회씨(25·강원 橫城郡安興面安興里)등 35명의 밀렵꾼을 적발, 이중 安씨등 6명을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2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安씨등 밀렵꾼들은 橫城·洪川 寧越·三陟·春川등 9개 시군에서 지난5월부터 지금까지 올가미 9백65개소와 덫1백67개소 함정 34개소 독극물 19개소등 1천1백83개소에 밀렵도구등을 설치해놓고 멧돼지 41마리와 노루 2마리 고라니 1마리 꿩21마리등모두 77마리의 야생조수류를잡아왔다는것。

경찰은 또 불법포획한 멧돼지 41마리중 寧越郡 下東面注文3里 이태재씨 (39) 가 사육중인 생후7개월짜리 새끼 멧돼지 4마리등 8마리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수사결과 금렵조치 해제이전에도 밀렵이성행해왔다는 사실을 중시,도내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확대키로했다。【鄭】

地下鐵건설 서울市債 3백억원

東京證市통해 賣却

서울시채 (市債) 가 東京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서울시는 16일 지하철3·4호선 건설비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위해 1백억엔 (한화3백억원) 어치의 시채를발행, 東京의 증권시장을통해 매각키로하고 현재 일본정부와교섭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9월 재무부의 허가를받아 일본大藏省에 시채매각을 신청하고 東京은행과 野村 (노무라) 증권을 매각담당간사회사로 지정해놓았다。

서울시관계자는 일본정부의 태도가 호의적이어서 현재 「상장대기」 상태에 있다고 밝히고 환금성이높아 벌써부터 일본의 山一·日興등 증권회사와 은행의 관계자들이 내한 매입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스위스증권거래소에도 시채를 상장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증권시장에 시채를 상장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B245-3539

警務官8명 辭表로 고위간부급 곧人事

경무관 승진과 보직이동에 따른 경찰고위간부의 인사가 곧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경찰고위간부의 인사는 16일 현재 개정된 경찰계급정년제에따라 내년6월 계급정년이되는 尹奇老 전남도경국장등 고참경무관8명이 사표를 냈으며 이들의 사표는 예상보다 앞당겨지게 될것같다。

사표를 낸 경무관은 高志龍 치안본부수사1과장 朴莊遠 수사2과장 高準秉 교통과장 金敞國 대공과장 劉應景 무과장 宋辰洙 장비과장 李炳周 보안과장 尹奇老 전남도경국장등인데 치안본부는 이들 명예퇴직자에 대해 1계급특진을 총무처에 품신했다。

地下봉제工場서 불

3명窒息 숨져

16일하오1시10분께 서울 鍾路區蓮池洞181 고려예식장뒤 崔東燮씨 (34) 의가내봉제공장 지하작업실에서 불이나 공장종업원 崔淑子양 (19·전남靈岩郡) 鄭蘭姬양 (20·〃) 정귀자양 (20) 등 3명이 질식 숨졌다。

불은 崔씨의 봉제공장등 봉제하청업체 3개가세든 지하1층 지상2층의 일식목조 건물 90여평과 원단·재봉기등을 모두태워 2천5백만원의 피해를 낸뒤 1시간만에 꺼졌다。

종업원 車春姬양 (18) 에 의하면 이날 재단사 崔鍾哲군 (18) 과 숨진 崔양등 종업원 5명이 작업장에있는 곤방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車양과 崔군은 공장앞 마당으로 나왔다가 5분뒤 작업장으로 들어가보니 바닥에쌓인 원단조각더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것。

숨진 崔양등 3명은 통로쪽에서 불이나는 바람에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경찰은 재단사 崔군이 식사를마친뒤 작업장에서 담배를피운 사실을확인,담배꽁초를 잘못버려 불이난것으로보고있다。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지하 가내 봉제공장에서 불이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불로 여자종업원 3명이 질식사했다。

가스中毒 2명死傷

【釜山】 16일 새벽 6시30분께 東萊區巨堤1洞13의 5 김도준씨 (40) 집 아랫방에 세들어 사는 유모군 (18·공원) 이 연탄가스에 중독, 숨지고 같이 잠자던 10대소녀가 중태에 빠진것을 김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鄭】

자취방서 4명숨져

高入시험치려던 中學生등

【蔚山】 16일하오1시30분께 경남 蔚山市鶴浦洞582의6 文옥자씨 (31·여) 집 아랫방에서 자취하는 金성만군 (19·울산현대공고3년) 과 김군의후배 林승표군 (17·보광중3년·경남梁山郡下北面) 등 4명이 숨져있는것을 文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文씨에 따르면 이날 낮이 되어도 아랫방에서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이들이 밥안에 음식물을 토한채 숨져 있었다는것。

朴군등 중학생3명은 蔚山에서 실시된 고교입학시험을 치르기위해 15일 하오2시께 선배인 金군의 자취방을 찾아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자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15일밤11시께 연탄을 갈았으며 외상이 없고 음식물을 토한채 숨져있었다는 주인 文씨의 말에 따라 연탄가스로 숨진것이 아닌가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鄭】

술마신다 是非에 夫人찔러 殺害

【釜山】 16일 새벽 0시50분께 東萊區 蓮山6洞 213의34 柳창현씨 (25) 가 자기집에서 부인 서경순씨 (22) 가 술마시고 늦게들어온다고 핀잔하자 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했다。【鄭】

江서 썰매타다 얼음깨져

쌍동이형제 溺死

【春川】 16일상오10시30분께 華川郡華川邑 아사리4반 앞 화천강에서 이마을 정상균씨 (30)의 3살난 쌍동이아들인 종원 종철군 형제가 썰매를타다 얼음이 깨지는바람에 깊이 1m물에 빠져 숨졌다。【鄭】

가스에 中毒 3男妹 숨져

【仁川】 16일새벽 4시50분께 仁川市南區 官校洞399 구영화씨 (59)집에 세들어 사는 김진일씨 (41·노동)의 장남 택선군 (13·부학국교6년) 과 장녀 유주양 (11·부학국교4년) 차남 택진군 (7) 등 3남매가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 숨져 있는것을 아버지 김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鄭】

中3과정서 70%出題

어제 全國서 高入선발考査

서울·부산을비롯한 전국20개 평준화지역의 '83학년도고입선발 연합고사와 비평준화지역의 전기고교입시가 16일 전국 1천1백1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고입선발고사에는 전국적으로 71만5천명의 입학정원에 79만9천명이지원,평균 1·12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충남, 전북, 경북, 제주등 4개도의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어 탈락자는 생기지않게되었다。

수험생들은 이날 상오9시부터 하오1시30분까지 3개교시에 12개과목의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는 중3과정에서 70%, 중2과정에서 20%, 중1과정에서 10%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시험이끝난후 문제지와정답이 공개되었다。

이날 연합고사문제는 각시도교육위원회별로 출제됐는데 서울지역의경우 학생들은 국어와 음악이 지난해보다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 과목들은 쉽게 출제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光州·木浦 라디오로英語시험

【光州】 전남도교위는 16일 光州·木浦지역 고입선발고사에서 고입사상 처음으로 영어시험 20문제중 10문제를 라디오방송 (KBS·FM) 을통한 시험을 실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법·독해력 평가위주의 영어시험을 듣기·쓰기등까지 골고루 평가하기위해 실시된 것이다。

전남도교위는 방송을 통한 영어시험을 위해 각고사장에 대형 라디오 2대씩을 배정했고 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지참을 허용했다。【鄭】

서울등 中部지방 올겨울 첫함박눈

16일상오부터 서울·경기일원을비롯한 중부이북지방에 올겨울 첫함박눈이 소담스럽게 쏟아졌고 남부지방에는 겨울비가 내렸다。

이날 눈은 서울과 경기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중앙기상대는 하오3시를 기해 뒤늦게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예상 적설량은 10~15cm。

한편 중앙기상대는 17일에도 전국이 흐리고 포근한날씨를 보이겠으나 18일상오부터는 고기압의 접근으로 날이 개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져 전국적으로 영하2~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商街양품점서 불

【鎭海】 15일 하오9시께 경남鎭海市和泉洞 중앙상가아파트1층 혜원양품점 (주인 이무영·25) 에서 불이나 이웃점포 19개를 태우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만에 꺼졌다。 피해액은 2천만원。【鄭】

5行뉴스

◆慶州유드호스텔팔려 【慶州】 洪錡子여인어음사건으로 그동안 대구은행이 관리해온 大和산업소유 경주유드호스텔 (대표 김재진·53·慶州市九政洞145의1) 이 11억8천25만원에 학교법인 信一학원에 공매됐다。【鄭】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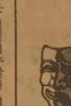
「3行 이력서」

京畿道 가축보건소장 30년 洪鍾舜씨

"젊은이들 이익따른 轉轉" 안타까와

「초대소장 30년」。 한 일터에서 30~40년 근속한 사람이 요즘은 적지않지만 민간기관도아닌 정부기관의 초대소장으로 장기간 근무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력서가 화려한걸 좋아하는 세속으로보면 조금 이상한 정도다。

경기도 가축보건소장 洪鍾舜씨 (60·사진) 의 이력서경력난은 단 세줄。 43년 경기도安城郡 農會근무 45년 보건후생국 수의과 獸疫계장 53년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장 (현 가축보건소장) 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축보건소의 초대 소장으로 30년을 근무해온 것이다。



楊州郡에서 독농가의 장남으로태어난 洪씨는 일제의수탈에 찌든 우리농촌의 부흥은 낙농에 있다고 생각, 京城公立농업학교에 들어가 병리학과 세균학을 전공했다。 학교를 마친후 42년1월 당시 국립연구기관인 獸疫혈청제작소에 들어갔다。

해방과 함께 전공을 찾아 보건후생국에 들어가 오늘까지 연구실을 하지않고 한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행정직을 맡으라는 권유도 여러번 받았고 부유회사의 유혹도 받았지만 모두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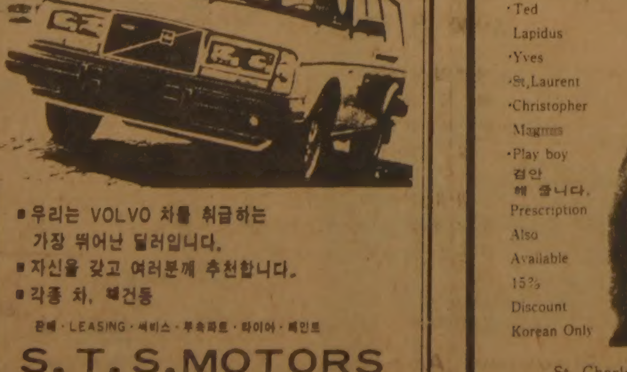
洪씨가 정열을 쏟아 일해온 경기도는 한국낙농의 심장이다。 전국낙농가 2만여가구중 절반이상이 이곳에 모여 있으며 특히 양계는 전국의 4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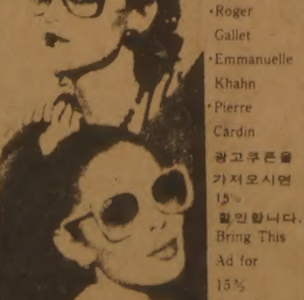
그러기에 고생도 많았다。 휴전직후인 53년9월 위생시험소의 초대소장으로 부임했을때는 직원이라곤 사환까지 합쳐 5명에 불과했다。 이 인원으로 경기도 전역의 축산을 돌보는게 쉬운일이 아니었다。 지금처럼 정부의 뒷받침도 없었다。 스스로 좋아서 가축속에 파묻히고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 한는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몇백두에 불과했던 전국의 젖소가 10만두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낙농도 부임초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읍니다。 빈손으로 뛰어다니던 보람을 느끼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말은 일에대한 사명감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걸 보면 세상이 변했다지만 안타까울때가 있읍니다』

오는 28일로 정년퇴직하는 洪씨는 「초대소장 30년」 정리에 한참이다。 단 세줄의 이력서에 매달린 공직생활이었지만 너절하게 긴 이력서를 내세우는 사람보다 더 값진삶을 살았다고 할까。 【朴榮基기자】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ㅁ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비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ㅁ기초반·중급반·상급반
ㅁ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ㅁ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S.T.S Motors
이제는
VOLVO를
타실 때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책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 T. S. MOTORS
전화 : 751-7664 웨덴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어×영 남쪽)

성회 광고
본교회 여신도회에서는 L.A. 영생교회의 김혜성 목사님 사모님이신 남정숙 박사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특별성회를 갖고저 하오니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며 알려드립니다.
ㅁ일시 : 1982년 12월29일 (수요일) 7시30분
12월30일 (목요일) 7시30분
ㅁ장소 : 메시야 한인교회
27 McCowan Rd, North-West McCowan Rd, & Hwy 401 (Grace Christian Reformed Church 건물)
ㅁ전화 : 298-1876
메시야한인교회
여신도회

三星팀웍정비、國民大대파

雄飛·延世大와 함께 8強결승 합류

대통령盃 농구

現代·三星(남자B조) 雄飛·延世大(동C조) 第一銀行(여자D조)이 8강이겨루는 결승토너먼트에 합류했다.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제11회대통령배쟁탈전국남녀농구대회 남자 B조에서 실업정상인 現代와 三星이 대학농구 정상을 자랑하는 高麗大와 國民大를 각각 꺾어 나란히 결선에 올랐다.

이날 現代는 辛善宇가 高大의 수비를 유린하고 朴守敎·李忠熙등의 중거리슛을 살려 단신의 高大를 87-71로 완파하고 2승을 마크했다.

高大와의 대전서 부진했던 三星은 이날 팀웍을 재정비, 주전들의 고른활약으로 國民大를 103-74로 대파했다.

남자C조서 雄飛는 陳孝準·朴仁奎의 활약으로 東國大를 91-74로제압하고 1승을 기록, 같은1승의 延世大와 결선에 나섰다.

한편 여자D조에서 第一銀은 元善子·李明姬의 분투로 商業銀行을 61-47로꺾고 1승1패를 기록, 太平洋化學에 이어 D조2위로 결선에합류했다.

이미 결선진출이 확정된 A조의 外換銀行과 서울信託銀行의 대전서는 外換銀이 65-55로 이겨 2승으로 A조 수위를 차지했다.

이날 실업정상 現代와 대학정상 高大의 대전은 신장 개인기 슈팅력등에서 앞선 現代의 승리였다. 양팀 모두 맨투맨으로 초반부터 격돌했는데 現代는 辛善宇가 高大의 수비를 헤집으며 어시스트는 물론 드라이브·인슛으로 맹공, 초반 3차례의 타이에서 벗어나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다. 高大는 崔副植·李珉鉉의 중거리슛으로 추격했으나 역부족, 10분께 33-23, 5골차로 뒤졌다.

現代는 朴守敎·李忠熙의 외곽슛이 불을 뿜어 高大의 추격에 쐐기를 박았다. 高大는 지역방어로 수비를 전환, 외곽슛을 봉쇄하며 리바운드에 주력하고 崔副植의 속공을 따라붙었으나 辛善宇를 막지못했다. 전반은 52-39로 現代리드. 승부는 전반에 가려진 셈이었다.

現代는 辛善宇가 진가를 발휘, 후반10분께 10점차로 앞섰다. 高大는 10분여를 남기면서 辛善宇가 빠진틈을 타 추격을 벌였으나 現代의 장신과위에 밀려 崔副植·李珉鉉의 분전도 보람없었다.

◇제4일전적

▲남자B조

삼성 103(52-34 51-40)74 국민대 (2승)(3패)

현대 87(52-39 35-32)71 고려대 (2승)(1승2패)

▲동C조

웅비 91(41-43 50-31)74 동국대 (2승)(2패)

▲여자D조

제일은행 61(31-21 30-26)47 상업은행 (1승)(2패)

▲동순위=①태평양2승②제일은1승1패③상은2패

▲동A조

외환은 65(31-25 34-30)55 신탁은 (2승)(1승1패)

▲동순위=①외환은2승②신탁은1승1패③보증기금2패

"母校도 봐줄수없다 李忠熙등 활약"

「실업頂上」現代에 高大침몰

여자部 第一銀도 商銀격파

◇손의 숲 헤치고 — 現代 센터 趙明洙(中)가 高麗大 골밑을 파고들어 金鎭(右) 金周郁(左)의 수비를 제치고 점프슛을 날리고있다.

프로野球 休息없다

球團들、겨울철 워밍업

개인技보완 국내외 轉地훈련

마음 다지기 寺刹 참선까지

내년 4월2일개막되는 프로야구 83년시즌을앞두고 6개구단은 선수들의 연봉조정과 함께 시즌에 대비한 동계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구단들은 대부분12월중 선수개인별 보완훈련과 연봉조정을 마치고 1월중 국내전지체력훈련, 2월 일본·대만·괌등에서 국외전지전술훈련, 3월 마무리훈련및 연습경기로 새시즌에 대비하고 있다.

82년 코리안 시리즈패권을 놓쳐 좋은 성적을 내고도 어느팀보다 큰 실의를 맛보았던 삼성 라이온즈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1월6일부터 東萊 梵魚寺에서 참선을 갖고 14일부터는 거제도에서 체력훈련을 실시한다.

金應龍감독을 맞아 정상권을 노리고있는 해태 타이거즈는 1월중거제도에서, 2월4일부터는 일본 오오사까에서 전지훈련을 가지며 2월26일부터 사흘간 협력관계를 맺고있는 일본프로팀 한큐(阪急) 브레이브스 1진과 3차의 친선경기도 갖기로했다.

삼성은 히로시마(廣島)에서, 롯데 오리온즈는 스프링 캠프가 있는 가고시마(鹿兒島)에서 각각 전지훈련을 쌓는다. 삼미 슈퍼스타즈는 인천구장에 새로 세운 비닐하우스에서 합동훈련을가진후 2월중 괌에서 전지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2連覇를 노리는 OB는 전지훈련지를 대만(臺灣)으로 선택, 2월한달동안 훈련키로했다.

MBC청룡은 1월초 설악산 또는 지리산에서 산악훈련을 실시하고 濟州나 淸州·春川등 국내구장에서 동계훈련을 가질예정이다.

◇프로야구 구단별 동계훈련계획

구단	기간	장소	내용
O B	12월중	포항	보완훈련
	1·8~1·20	연수원	체력훈련
	1·21~1·31	마산(서울)	기초훈련
	2·1~2·28	대만	전술훈련
	3·2~3·20	마산(서울)	정비훈련
삼성	1·6~1·13	범어사	禪·산악훈련
	1·14~2·9	거제도	체력훈련
	2·10~3·10	히로시마	전술훈련
해태	12월중	휘문고	보완훈련
		광주	〃
	1·5~1·31	제주도	합숙훈련
	2·4~2·28	오오사까	〃
	3월중	광주	마무리훈련
롯데	1·5~1·31	마산	체력훈련
	2·1~2·21	가고시마	전술훈련
	3월중	부산	마무리훈련
삼미	12월중	인천	보완훈련
	1·6~1·31	인천	합동훈련
	2월중	괌(예정)	전지훈련
MBC	1·5~1·9	설악(예정)	산악훈련
	1·10~1·24	체육관(미정)	체력훈련
	1·25~2·28	진해·청주	전지훈련

여자卓球 우승樂觀

世界대학생選手權 남자도 西獨과 爭覇

제4회 세계대학생 탁구선수권대회(브라질포르투알레그레)에 출전한 한국여자팀은6개팀 풀리그로 벌어지는 여자단체전에서 브라질과 서독을 각각 3-0으로 완파하고4승으로 단독선두를 마크, 우승이 확정적이다.

한국 여자팀은 17일 일본과 최종전을 남기고있으나 일본이 이날 캐나다에 1-3으로 패배, 3승1패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이 일본에 지더라도2세트만 따내면 우승하게 된다.

한국 남자팀도 캐나다를 5-2로 물리쳐 3승으로 A조 1위를 마크, B조1위팀 서독과 결승전을 갖게 되었다. 일본 남자팀도 이날 B조예선에서 서독에 5-2로 패배, 우승권에서 탈락했다.

한국은 영국에서 열린 3회대회때 남자팀이 처음 출전, 단체·복식 2위, 단식 3위, 여자선수를 파트너로 金浣이 혼합복식 우승하는 전과를 올렸었다.

첫亞洲3連霸「예약」

「金메달코치」가 診斷하는 金메달리스트

潛在力은…

◇金準性코치

역도 安智榮 安孝爵

아시안게임 3連霸。한국역도의 간판스타 安智榮이 4년후 이 목표를 섭취할수 있을까。현재까지 白玉子(육상)와 趙五連(수영)이 아시안게임서 2連霸를 달성한 기록은 있으나 한국선수로 3連霸를 차지한 선수는 없다。

방콕(78년)과 뉴델리서 연속 우승한 安智榮은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서 대망의 3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1백㎏급서 安智榮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安智榮은 이번 아시안게임서 인상 147.5㎏、190㎏、총계 337.5㎏을 들어 아시안게임 신기록으로 무난히우승했다。각국선수들이 安을 두려워한 나머지 체급이 높은 1백10㎏급으로도 망가는 현상까지 빚었다。

安智榮의 특징은 신체기능이 뛰어나다는점。경량급선수와 같은 유연하고뛰어난 신체조건을 구비하고있다。또한 타고난 골격이커 체중을 무리하게 줄이지않아도 자기 체중을 유지할수있는강점을 지니고있다。

『安智榮은 체력만 보완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수있었다。기능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安智榮이 아시안게임 3연패를 이룩하려면 체력관리가 앞으로의 문제점이다』고 金準性코치는 지적하고있다。

金코치는 安의 체력 보완여하에 따라 인상 180㎏、용상220㎏을 들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安智榮은 갈림길에 놓여있다。27세인 그가 4년후까지 계속 선수로 뛸수있느냐는것이 관건이다。『安이 4년후에도 연습을 계속해 준다면 충분히 금메달을 딸수있을 것이다。공부를 택하느냐、운동을 택하느냐는 문제는 본인의 결심 여하에 달려있다』

安智榮은 스포츠 지도자 또는 학자가 되기를 원하고있다。高麗大를 졸업하면 외국유학의 꿈을 키우고있다。주위에서는 공부와 훈련을 양립시킬수있는 방향을 권장하고 있다。

『安은 공부를 하면서 연습을해도 4년후 금메달이 가능하다。역도선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체중조절인데 安은 체중을 줄이지않아도 체중유지가 가능하다。체력만 보완하면 공부를 병행해도 된다』고 金準性코치는 분석하고있다。

1백10㎏급서 우승한 安孝爵도 2연패에 도전하고 있다。安孝爵은 인상 157.5㎏、용상 192.5㎏、총계 350㎏을 들어 뉴델리서 금메달을 차지했다。安智榮과 대조적인것은 신체여건이 뒤떨어지지만 근성이 강한 강점을 갖고있다。

『역도선수는 신체 관절이 좋아야 한다。安孝爵은 상완이 짧고 하완이 긴 결점을 갖고있다。특히 용상에서 클린 동작을 할때 기구가 곧장 올라가지 않고 뒤로흐르는 경향이 있다。이결점이 끈질긴 노력으로 많이 보완되었다。앞으로 이결점을 어떻게 개선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身體기능 뛰어난 獨步的존재 安智榮

결함고친 努力派 2連霸가능 安孝爵

安孝爵은 선천적인 체질보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대성한 선수。체력 보완、유연성을 길러나가는 끈질긴 노력을 金準性코치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자기 반성에 철저한 선수다。어떤 결함이라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는 놀랄만 하다。기능적으로 뒤떨어진 점을 노력으로 커버하고 있다』

安孝爵의 4년후 가능성에 대해 金準性코치는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아시아지역에서는 중량급 선수들의 신체기능이 서구 선수들에 훨씬 뒤지고있다。그러나 신체기능이 뛰어난 선수들도 가끔 나오고있다。金準性코치는 레바논의 함시를 기능면에서 가장 훌륭한선수로 꼽고있다。북한의 박봉준은 용상서 2백㎏을 들어 安孝爵을 능가했다。

당분간 安智榮의 적수는 나타나기 힘들것으로 보이나 1백10㎏급서는 박봉준과 함시가 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安孝爵이 4년후를 바라보려면 이들의 도전을 뿌리칠수있는 노력과 기능개발이 필요하다고 金準性코치는 분석하며 분발을 촉구했다。【閔炳宰기자】

◇3連霸 꿈아니다 — 한국선수로는 유일하게 아시안게임 3連霸를 노리는 安智榮。앞으로 4년간 더 선수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金準性코치는 말하고있다。

安智榮、學業전념 갈림길… 併行권장도

安孝爵、北韓·레바논選手추격 뿌리쳐야

抱川綜高 孫聖國 인상 한국學生新

徐相天盃 역도

16일 水原시 체육관에서 열린 제41회 文谷 徐相天盃쟁탈 단체대항역도대회첫날경기서 抱川綜高의 孫聖國(1백㎏급)은 인상서 1백20㎏을들어 한국학생신기록(종전 1백15.5㎏)을수립했다. 抱川綜高는 孫의 활약에힘입어 7백5㎏으로 중량급 1위를 차지했으며 경량급에서는 6백45㎏을든 서울體高가 우승했다.

◇학생부

▲경량급 ①서울체고 6백45㎏ ②경북체고 6백35 ③수원고 6백22.5

▲중량급 ①포천종고 7백5㎏ ②대전체고 6백85㎏ ③서울체고 6백85㎏

서울올림픽에 野球채택논의

스미드會長 來韓

국제아마추어야구연맹(AINBA)의 로버트·스미드회장이 17일낮 내한, 88년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金溶植위원장, 曺相鎬사무총장, 金世源대한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겸 86년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사무총장, 李源京체육부장관을 차례로 예방, 서울대회에서의 야구종목채택문제를 논의한다. AINBA와 대한야구협회는 84년LA올림픽시범종목인 야구를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에서 정식경기종목으로 채택하도록 추진중이다.

스포츠短信

女子핸드볼選手團 귀국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8회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6위를 차지한 한국선수단이 16일하오 대한항공편 귀국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4>

부드러운 겨울 ⑳

朴婉緖 作

수지는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있는게 자기아닌 남의 일인양 이렇게 안타깝게 제동을 가하려했지만 안될말이었다.

일단 발을 들여놓기가 잘못이었다. 그 어딘가에 오목이와 저주받은 삶이 숨어있을 동네가 수지를 수렁처럼 끌어당겼다.

한편, 외면해선 안돼。오목이가 사는모습은 바로 네가 저지른 일의 결과야。그걸 외면해선 안된다는 준엄하고 심심한 소리가 채찍처럼 그녀의 등어리를 후려치고 있었다。그래서 그녀는 비탈길을 겨우겨우 기어오르면서도 비탈길을 곤두박질치고있는 것처럼 걷잡을수없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주 길을 물었다。대개는 부엌문과 대문을 겸한 비슷한 구조의 집들을 기웃거려보기도 했다。이제 겨우 어둑어둑해오는 초저녁부터 구멍가게에서 소주잔을 비우고 있는 막벌이꾼 남자가 유기 사인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남자는 투박한 손등으로 들루를 떨면서 흘레스럽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수지와 눈이 마주치자 우울하게 웃었다。다행히 유기사는 아니었다。

맨나중에 그녀를 목적지까지 안내해준건 일남이었다。한 골목에서 만난 일남이는 한 손엔 두부를 한손엔 쏘시게 단을 들고 있었다。일남이를 만나게 반가기도하고 양손에 든 흑백의대조가 우스꽝스럽기도해서 수지는 숨가쁘게 웃었다。

『아주머니가 이동네 웬일이세요?』

일남이는 피곤한 어른처럼 물었다。

『웬일은 웬일이야?인석아 너희집에 기쁜 소식을 가져왔지』

수지는 산타할아버지처럼 풍요롭고 위선적인 몸짓으로 소년의 어깨를 안았다。그러나 소년은 생전처음 산타할아버지를 맞아보기때문에 그 영접방법이 매우 서툴렀다。어깨를 비틀어 빼고 뺑소니치기시작했다。다행히 소년의 집은 거기서 가까와서 수지는 곧 따라잡을수가 있었다。

소년이 대문간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연탄집게를 휘두르며 마중나온 오목이가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욕을했다。

『아이구 이 원수야、어서 또 한눈을 팔다 이제오냐 이제오길。그새 탄이 아주 가버렸으니 쏘시게탄하나 갖고 살리긴 다틀렸다、이 원수야』

오목이의 목소리는 밝고 씩씩했다。목소리뿐아니라 버티고 선 몸집도 썩 건강하고 씩씩했었다。수지는 그렇게 극성스러운 오목이를 보기도 처음이었지만 그렇게 정(情)이 넘치게 웬수라는 욕을 하는것을 듣기도 처음이었다。수지는 폭발하려는 웃음을 참으려고 어금니를 물었다。여지껏 줄창 병석에서 창백하게 죽어가는 오목이만 상상하다가 그런 오목이를 만나니 집을 잘못 찾은것처럼 얼떨떨하면서도 유쾌했다。

한대 오지게 쥐어박히고난 소년은 맷집 좋은 미소를 띠고 뒤따라온 손님을 가르쳤다。

『에그머니 사모님이 어쩐일이래요?』

『좋은 소식이래요』

수지대신 소년이 의젓하게 말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래도 그렇죠。사모님이 오실데가 있고 못오실데가있지。이를 어쩌면 좋아요?』

『뭘 어째? 좀 들어오라고도 안할래』

『그래요。언니 들어오세요。방구석이 구질구질해서 어쩐다지?』

오목이는 제풀에 사모님대신 언니로 바꾸어 부르면서 잠시 움찔했던 기세가 다시 밝고 씩씩해졌다。

성탄·연말·연시 선물은 한국일보 구독권으로!

부모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연인에게

★아래 신청서를 기입하시고 1년 구독료$99.00와 함께 본사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본사는 신문을 보실 분에게 누가 구독료를 내주었는가를 통보합니다.

To; NAM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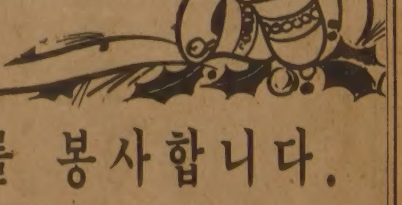
ADDRESS .... APT.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From; ....

<중국 홍콩식요리 전문 레스토랑>

Rose Garden Restaurant



한국인 입에 맞게
한국식 중화요리를 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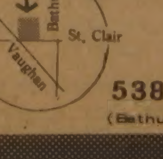
일류요리사 초빙

짜장면
간짜장면
짬뽕
울면
잡탕밥
비빔밥
해삼탕

■ Free 주차장
■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 주문시 배달합니다.
■ 매일(년중무휴)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656-0456
654-6609



538 St. Clair W.
(Bathurst × St. Clair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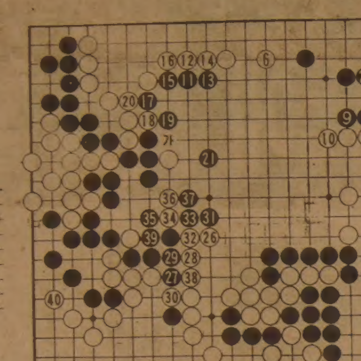
대표 유창준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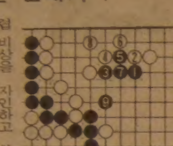
第5局 第8譜 106~140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 奉 洙 〈첫판〉

黑(7段) 盧 永 夏 〈1敗〉



치열한 끝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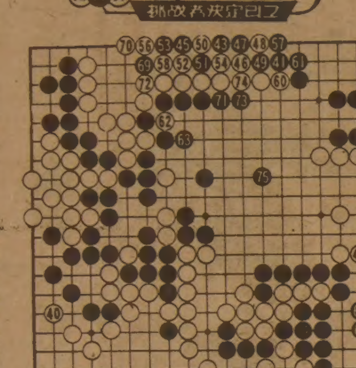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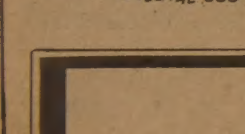
第5局 第9譜 140~176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 奉 洙 〈첫판〉

黑(7段) 盧 永 夏 〈1敗〉



白 공연한 오기다툼



한국일보구독은 533-2361

부드러운 겨울 ㉑

朴 婉 緖 作

金 光 培 畵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5〉

海外女性

核무기는 害惡뿐이다 反核운동을 폭탄처럼

미르달女史 노벨평화賞 受賞연설

賞金 15만7천弗

○…82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확정된 스웨덴의 핵무기반대운동가 알바·미르달여사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12일 베풀어졌다. 미르달여사는 공동수상자인 멕시코 외교관 가르샤·로블레스씨와 함께 15만7천달러의 상금을 나눠받고 연설을 했다. 그녀는 이 스피치에서 『이제 핵무기반대운동이 마치 폭탄처럼 터져 나와야 할때』라고 말하고 『핵무기는 오로지 해악만 일으킬뿐, 이로운것이 손톱만큼도 없는것』이라고 역설했다. 미르달여사는 현재 北유럽 핵무기반대운동의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前인도주재대사를 지냈고 여성과학자로 명성을 …

4百명 울고불고

시간當3百名취직

女高生엔군사훈련

男子가 식별 쉬워

딸養育에思想시비

레넌 2周忌… 팬들 밤샘소동

美, 不況으로 직업소개프로 人氣

가다피의 改革… 女性위치 큰 변화

◇겁에 질린 승마選手 『엄마, 무서워』 최근 플로렌스에서 열린 승마대회 소년부에 참가한 한소녀가 달리는 도중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있다。아만다·플라크라는 이 소녀는 정신력은 약했지만 승마실력은 좋은 편이었다。

◇존·레넌의 미망인 오노·요오꼬와 아들 진。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이사회에서는 지난14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양로원 건립 문제를 놓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지상을 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1. 소수민족에게 한번 돌아오는 이혜택을 우리민족의 슬기로 물거품이 되지않게 하는데 적극 앞장서자.
2. 우리는 시내 모교회이름으로 추진중인…교회 양로원건립위원회와 개인명의로 추진중인 이~씨에게 하루속히 모든 사항을 중단하고 한인사회에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3. 우리는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가(회장 천중환) 현재 정관을 개정하여 한인회 산하 기관으로 전체 교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확약받고 이에 적극 협조할것이다.
4. 개인의 명의나 한교회의 명의로 하면서 설문지를 돌리는 어떠한 기관에 현혹 되시지말고 회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많은 호응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 12월16일

사단법인 한국노년회 회장 조영호 이사회 일동

謹賀新年

한국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대표 나 옥녀

개업5주년기념 봉사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비빔밥	$4.00
곰탕	$3.25	육개장	$4.00
냉면	$3.25		

영업시간 : 오전10시 ~ 새벽1시까지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전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울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que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회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좋은사람 구함. Full Time 주유소(Gain) 영주권자로써 1년이상 거주자. ◉877 Dundas St. W.(Bathurst St. 서쪽 300M)
내 방시간: 9am~3pm, 7pm~9pm

Part Time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전화 : 447-2116 (Mrs. 윤)

Donut Shop Casher 구함.
학생환영(스카보로 지역)
전화: 497-0221 Mrs 김.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Part time 스토아 캐쉬어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88-1634

입주하셔서 할머니를 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275-0339 Mrs. 임
(오후 6시이후 전화 요망.)

밤12시에서 아침7시까지 일할 경험있는 가게 캐쉬어 구함.(Mac's Milk Store)
전화: 421-1089. 250 Laird Dr.(Eglinton)

입주 또는 출퇴근하시면서 3살반된 애기 봐 주실분.
단. 담배피우지 않는분에 한함. ◉스카보로 북쪽.
전화: 496-1664 Mrs. 리

여자 가정교사 초빙
9. 11. 12학년 학생 가르쳐주실 여자분 선생님 원함.
전화: 694-1811. 691-8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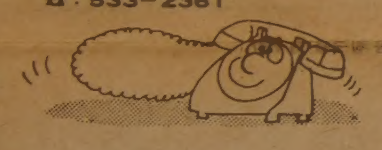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가족같이 애를 봐주시며 지낼분 환영함.
전화 : 669-6438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경험있는 풀타임 요리사 구함.
낮 또는 밤. 1315 Steeles Ave.(Dixie)
Mississauga. Ont. ◉전화: 457-1900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섬세한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Tofel Michigan Test 준비
아동학습지도(다년간 지도경험) Honour B.A.In Economics
최미경 전화: 242-4745(오후 6시이후)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빌딩과 비지네스 매매.
잘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과 2층에 2 Bed Room 아파트.
Queen St. East.(of Dufferin)
아스킹 : $193,000
전화 : 363-2440.
G.R.Paterson Real Estate Ltd.

Winter 피아노. 새피아노 가격 $3,500 을 $2,300에 팔고자 함.
좋은 컨디션과 조율했음.
전화: 665-8233, 636-1430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Montreal Trust Company Realtor.
플라자내에 좋은 비지네스를 원하는 투자가를 찾읍니다.
다운페이: $250,000이상.
딴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당신에 스페샬 리스트 Dave Lal
전화: 275-5555

Canada's Wonderland 근처의 Gift Shop 매매.
아스킹: $22,900+스탁. 전화: 746-4360 Joe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Take-Out 햄버거 비지네스 팝니다.
Income: $85,000/Y ◉주6일 영업. ◉하루12시간 오픈
문의시간: 오전9시~오후9시. 782-6893 Peter.

Becker's 프렌차이스 매매
Bayview & Hwy7 근방. 아스킹: $25,000
전화: 889-4574

주인이 정년퇴직으로 구두방과 빌딩매매
또는 가게렌트도 합니다.
803 St.Clair Ave. W. 전화 : 654-1455

▲Florida.Custom Built 2Bed Rm집.
중앙식 에어콘과 히팅.
대지 80'×125'. 1983년 2월에 입수.
아스킹: $27,500 US달라.
Clearwater에서 35분 북쪽 on U.S. 19. Beach에서 7분거리.
전화: 665-9115
▲휴양지 수페셜라이징한 몰개지 회사
Gross: 1 Million이상. 주인은 정년퇴직.
전화: 665-9115

수입 좋은 건물.(Bloor & Dovercourt)
디타치드. 방10개. 화장실3. 부엌2.
10%이자 아스킹: $79,900. ◉$10,000 다운페이.
전화: 298-7000 Silwin.
SILWIN REAL ESTATE LTD.

-"FOR LEASE"
-밀크스토아 장소. Brampton과 Oakville.
Oakdome Realty Ltd.-Realtor John W. Westerberg. 전화: 844-0363

Typesetting, 식자 Business하실 분
소자본으로 여자 혼자할 수 있는 업종임.
문의처 : 533-2364 Mrs. 김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아파트 쎄브렛. 3Bd. Rm. ◉Albion & Weston에 있는 새아파트. ◉리스: 83년 8월까지.
전화: 488-2436(B). 745-0409(R)

Victoria Pk. 서브웨이에 있는 3Bed Rm. 콘도미니움 아파트 렌트 렌트: 월 $695(다 포함)
전화: 698-6415. 624-3849

1 Bed Rm. 아파트 렌트. 교통 편리함.
싱글이나 부부에 적합.(Eglinton & Mt.Pleasant)
전화 : 488-1634

새로 꾸민 지하실 2 bdrm(거실, 부엌, 목욕탕)
세 놓습니다. Bathurst와 St.Clair 지역임. 월 $280
출입구 따로 있음. Mrs.채 Tel: 651-5388

방세 놓음(Victoria Pk. & Finch)
1Room(월 120불) 여자분에 한함.
전화: 497-0221 Mrs. 김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화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C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범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핀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분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Happy Holiday Season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닥아오는 새해를 맞아 교민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교민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신의상사

대표 문인식외

직원일동

CASH & CARRY

Sincere Trading Co. LTD.

116 TYCOS DR. TOR. TEL 781-6660,6669

OMEGA

이번 X-Mas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 하세요

100여종의 여러 디자인

오메가 데이

다이야몬드 · 금목거리

세일기간 : 12월15일 ~ 1월29일

오전10시 ~ 오후 9 시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나가신 분을 위하여
일요일에 12시 ~ 6시까지 특별봉사

40% OFF

40% OFF

다이아몬드 귀금속 (공인감정서 첨부)

투자용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지등, 에메랄드, 루비, 싸파이어, 진주, 비취, 오팔등

● 혼례용 보석및 시계

⊙ 금목거리 10K, 14K, 18K (이태리산 최신형)

오메가시계 남, 녀 오메가 고급시계외 100여종 시계 다량준비하여 교민여러분께 염가로 특별 봉사합니다.

이번 밍크, 모피 특별쇼 기간후에도 계속 여러종류의 우량품 밍크, 모피 제품등을 준비하여 연중변함없이 여러분을 모시겠사오니 왕림하여 주십시요.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